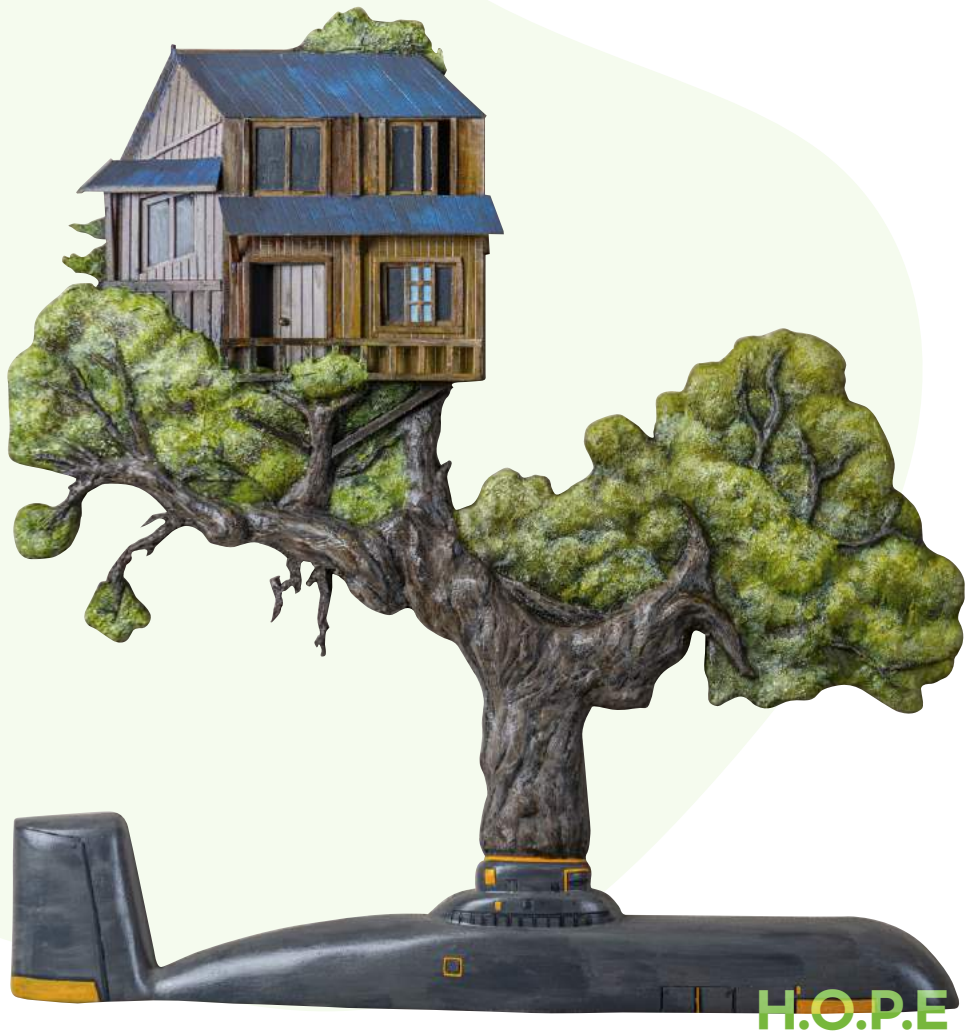


공감 프리크

문화예술정보지

Busan Cultural Foundation Magazine

Vol. 40 Spring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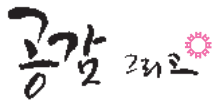


유은석 - 여기가 어딘가요

2020, 70×6×73(cm), 포맥스, F.R.P, 아크릴채색

어디론가 열심히 가고 있지만 어디로 가는 것인지, 또는 그곳이 정말 본인이 가고자 하는 곳인지 알 수 없는 혼란을 겪는 현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우리는 학교를 다닐 때부터 선생님, 부모님 등의 어른들로부터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가야 한다는 말을 듣고 자라왔다. 나아가 어른이 되어서도 타인으로부터의 요구와 바람, 강요는 계속 이어진다. '이것이 내가 바라던 삶인가?' <대리항해展>에서 전시한 작품들은 바로 그런 부분에서 오는 현대인의 혼란을 표현하였다.



Busan Cultural Foundation Magazine
Vol. 40 Spring 2021

통권 40호 정기간행물(부산남 바00007) ISSN 2586-1077

등록일 2011. 6. 23. **발행일** 2021. 4. 13.

담당부서 부산문화재단 기획홍보팀

발행처 부산문화재단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84-1(감만동)

TEL. 051-744-7707 www.bscf.or.kr

편집위원 문진우 심창신 홍동식 신용철 이연승 양화니

편집기획 허장수 김지혜

디자인 및 제작 효민디앤피

부산문화재단에서 발행하고 있는 계간지 「공감 그리프」는 문화예술 전반을 아우르는 '정보 제공형 문화예술 잡지'입니다. 「공감 그리프」에 실린 글과 사진은 부산문화재단과 저작권자 양측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감 그리프」에 실린 글은 모두 개인 필자의 의견임을 밝혀드립니다.

CONTENTS

04
여는글
희망은
어디에서 불어오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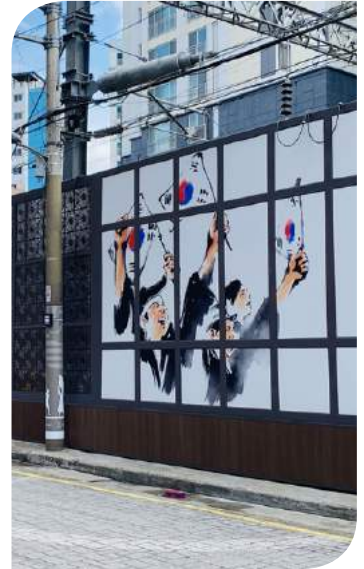
공감의 뱃고동

08
Space
고가도로 하부공간의 새로운 실험
B-Con Ground

12
Harmony
빈집 그리고 발견

18
Issue
상상력으로 채워가는
새로운 시대의 희망

22
People
뉴택트 시대를 향해하는
예술가를 위한 안내자 심문섭 대표



공감리뷰

30
아이러니가 교차하는
시범(示範)도시

B-Side

38
예술, 목적지가 되고
여행이 되다

돌아와요 부산향애

44
니, 그거 아냐?
니! 구포, 거 가봤나

50
누꼬?
한국 역사민속학의 선구자
남창(南滄) 손진태 선생

54
거 가봤나?
구포 만세거리를 가다

그리고 재단

62
듣기
지금, 소통의 깊이에 더 집중할 때
나, 너, 우리를 이해하게 하는 '예술'

66
말하기
<COVID-19> 속 <B-바빠롤라>로
새로운 도전

68
보기
주요행사

“210113_입들

간밤에 서걱거리는 별빛을 오도독 씹어 먹었어. 달빛이 부서져 내리며 오로라 춤을 추었어.
시베리아 아이들처럼 차디찬 물을 입안에 머금었다 손에 땀어내어 낫을 씻었어.
눈에 들어간 티를 활아서 빼주던 엄마 혀가 그리워졌어. 딱딱한 음식을 입안에서 씹어
먹여주던 엄마 암족은 힘살이 되었어. 우리가 이제 쓰지 않는 입들이 그리워지는 아침이야.
우리 입들은 이어져 있어.” (글쓴이의 페이스북 2021년 1월 타임라인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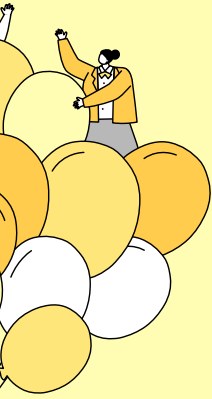
희망은 어디에서 불어오는가

글. 신용철 민주공원 큐레이터

네발서기와 곧추서기

네발로 기다가 곧추 서고 싶었다. 왜 그랬을까? 고개를 돌려 등 뒤를 바라보며 나의
뿌리를 더듬어보고 싶었을까? 하늘 위를 쳐다보며 우주를 가능하고 싶었을까? 목
덜미를 부비거나 콧등을 서로 부비는 것으로 모자라 가슴으로 가슴을 만나 너를
안고 싶었을까? 알 수 없는 바람이 우리를 곧추서게 했다. 앞발은 손이 되었
다. 기는 것으로 쓰던 앞발은 손이 되면서 만드는 것이 되었다. 손에 잡
히는 모든 것이 손의 기능을 확장하거나 세밀하게 만드는 도구
가 되었다. 불을 피우게 되면서 도구는 인간 신체를 보조하
는 역할을 뛰어넘어 인간의 삶을 규정하고 나아가 인
간 삶 스스로가 되었다. 이제 도구 없는 삶은 없
다. 도구로 지탱하는 인간-기계가 되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앞발을 들어
손을 만들었다. 손을 뺀어 도구
를 만들었다. 도구를 치켜
들어 땅을 일구었다.
일군 땅을 지키려 집
을 지었다. 집과 집 사
이를 이으려 갖가지





움직이는 집들을 땅과 하늘 위에 심었다. 불박힌 집들과 움직이는 집들로 우리의 우주는 바글거린다. 우리가 만든 집들이 우주를 가득 메우는 사이 우리 아닌 것들이 살아갈 집들은 떠돈다. 인간이 만든 집들이 인간 아닌 것들의 집들을 빼앗고, 인간이 만든 집들이 또 다른 인간의 집들을 빼앗아 새로운 질서를 만들었다. 빼앗은 이들은 더 빼앗고, 빼앗긴 이들은 빼앗은 이들의 집에 빌붙어 제 목숨을 이어가는 수직의 사다리를 우리 도구가 지탱하고 있다.

경계예술, 도깨비예술

‘경계’는 이것과 저것 사이에 있는 것이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지만, 더불어 이것이기도 하고 저것이기도 한 것이다. 이것과 저것 사이의 어지러진 곳에 머물거나 떠다니다가 이것과 저것에 끼어들고 탄죽 걸고 추임새 넣은 것이 ‘경계’의 꿀값이고 구실이다. 느닷없이 솟아난 새로운 존재이기를 바라지 않는다. 태도 곧 마음 먹음이고 몸가짐이다. 존재가 되어 제 스스로를 뽐내기 보다는 이것과 저것 사이의 어름에서 태도로 머무는 것을 즐긴다. ‘경계’ 곧 ‘사이’를 잘 살펴야 한다. 인간과 못 생명 사이에 경계가 있다. 우리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경계는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다.

그들과 우리들이 사는 마을과 마을 사이에 도깨비가 산다. 이승과 저승 사이에 귀신이 산다. 한국 도깨비와 귀신은 제 꿀이 없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여기는 머리에 뿔이 달려있고 가죽옷을 입은 도깨비의 꿀은 일본 도깨비 오니(おに)의 꿀이다. 우리 도깨비와 귀신은 꿀이 없으나 꿀값과 구실만 남아 사람들 입에 오르내린다. 그들은 늘 우리들 어름에 어슬렁거리다가 우리를 때론 골리기도 하고 때론 같이 놀기도 하는 경계의 목숨들이다. 경계의 목숨들이 갖추고 있는 갖가지 꿀값들은 우리들의 꿀값을 비추는 거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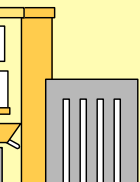
메타(meta)는 빗대어서 얘기할 것의 꿀을 빌어서 그것

의 꿀값을 알아차리게 하는 것이다. 메타시는 시의 꿀을 갖추고 있되 시의 꿀값을 차리게 하는 시이다. 메타연극은 연극의 꿀을 갖추고 있되 연극의 꿀값을 차리게 하는 연극이다. 경계는 이것과 저것을 들여다보는 메타의 영역이다. 경계를 잘 살펴야 이것도 살고 저것도 살 수 있다. ‘경계예술’이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쓰는 우리네 융복합 학문과 예술의 현장이 놓치고 있는 태도를 보여주는 말이다. 제 선 자리를 낮설게 바라봄으로써 늘 새로울 수 있다. 살아있는 목숨들은 늘 그러해야 한다. 우리의 융복합 학문과 예술이 살아있으려면 제 경계를 낮설게 알아차려야 한다.

본풀이 그리하여 비나리

우리 본풀이는 인류가 살아온 내력을 밝히는 일이다. 내력을 밝히는 곡절은 지금의 문제를 낮설게 알아차리기 위해서이다. 우리 본풀이는 우리 시대의 비나리로 이어진다. 비나리는 죄를 ‘비는’ 것과 바람을 ‘비는’ 것의 짝으로 이루어진다. 비나리는 본풀이로부터 빌어오는 것이다. 본풀이는 우리가 오래도록 꿈꾸어 오던 꿈으로부터 빌어오는 것이다.

희망은 어디에서 불어오는가? 희망은 우리가 오랫동안 꿈꾸어오던 꿈으로부터 불어온다. 사람들만이 꾸던 꿈이 아닌 못 생명들과 함께 일구어오던 온 생명 지구의 꿈으로부터 불어온다. 바람 잘 날 없던 지구는 바람으로 숨을 쉬고 입들을 맞추고 춤바람 신바람으로 발맞추며 춤추었다. 희망은 그리하여 우리들 안으로부터 불어입길이 열리고 말길이 열리고 거리로 이어져 바람 잘 날 없는 거리로 이어질 것이다. 우리 희망은 이어져 있다.



BGM [KLAATU_Hope_1977]

공감의 벋고동

- 008 **Space** | 고가도로 하부공간의 새로운 실험
B-Con Ground
- 012 **Harmony** | 빈집 그리고 발견
- 018 **Issue** | 상상력으로 채워가는 새로운 시대의 희망
- 022 **People** | 뉴택트 시대를 향해하는
예술가를 위한 안내자 심문섭 대표



고가도로 하부공간의 새로운 실험 B-

예전 근대화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고가도로. 하지만 지금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지역 발전을 저해한다는 인식이 만연한데. 이에 부산은 발상의 전환을 통해 애물단지가 되어가는 고가도로의 하부공간을 새로운 공간으로 재생시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고가도로로 양분된 낙후지역을 연결하는 동시에 부족한 문화공간을 제공하는 새로운 공간. 바로 복합생활문화공간, '비콘그라운드'다.

글. 김재승 (재)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 비콘운영 T/F 팀장



Con Ground

수영고기교 전경

고가도로 하부공간의 재발견

부산은 동서로 길게 늘어진 도시 형태와 물류도시로서의 기능상 필연적으로 많은 고가도로가 설치되었다. 지금은 철거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진 자성고가교를 시작으로 부산에는 모두 24개소의 고가도로가 설치되었고 이들은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 물류 중심의 교통량 처리 등을 담당하며 1970~1990년대 근대화의 상징으로 여겨졌지만 현재 일부는 새로운 교통체계의 도입, 지하도 등 대체 인프라 설치 등 변화된 환경으로 인해 지금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일조권을 방해하는 유해 시설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산의 최장수 고가도로였던 자성고가교가 철거되었고, 전국에서 두 번째로 긴 고가도인 동서고가도로 역시 사상-해운대 간 대심도 건설 계획으로 철거가 논의되고 있다. 이렇듯 도시 내 고가도로가 점차 기능을 잃고 철거가 논의되는 상황에서 부산은 발상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방식을 시도했다.

여전히 현역으로 기능을 하고 있는 고가도로인 수영로 수영고가교 하부공간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해 재생시켜 보자는 구상을 통해 탄생한 공간이 바로 비콘그라운드다.

부산을 상징하는 지역의 생활문화시설


부산시는 단순한 유희공간의 재생을 넘어서 상징성 있는 랜드마크로 조성하고자 해양물류도시 부산을 상징할 수 있는 컨테이너를 활용한 공간을 설계했고, 시설의 명칭 역시 부산의 이니셜 'B'와 '담다'라는 뜻인 컨테인(contain)의 줄임말 'Con'을 합성하여 '부산의 감성과 문화를 담은 그릇, 공간'이라는 의미와 해양물류도시 부산을 상징하는 '부산 - 컨테이너' 두 가지 의미를 중의적으로 표현했다. 1km에 달하는 비콘그라운드는 지형, 교통, 주변 시설, 지역 주민과의 상생을 고려하여 6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기능을 배치했다. 수영터널 측 구간은 기존의 생활체육시설, 높은 고가교의 트인 개방감을 고려해 주민들이 레저활동과 더불어 커뮤니티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커뮤니티그라운드로 구성했다. 커뮤니티그라운드와 연결되는 망미교차로 인접구역은 인근 주거지를 고려해 가족 단위 공간인 패밀리데크로 구분하여 예술인 창작공간을 조성하고 주민들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오픈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망미교차로 반대쪽 구간은 다양한 교통수단에 의한 유동인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광장 공간인 비콘



» 컨테이너로 조성된 비콘그라운드 외관





빈집 그리고 발견

글. 오금아 부산일보 문화부 부장

비어있음, 무언가가 사라졌으며 무언가를 채울 수 있음.
부산문화재단의 2020년도 지역문화예술교육기반구축:
노마드문화예술교육 '빈방의 서사(敍事),
다섯 가지 이야기는 비어있는 공간에서
사라진 것과 새로 채울 수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했다.

» 부산진구 초읍동 <잃어버린 시간, □의 방>



» 사하구 다대포 <시간의 서(書)>



» 서구 아미동 <집의 순환>

이런 집이 있었나?

‘빈방의 서사’는 동구, 부산진구, 사하구, 서구 등 부산 시내 여러 지역의 빈집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2019년 ‘수정아파트 프로젝트’가 동구 수정동의 노후 아파트를 지정해서 예술가들이 프로그램을 채우는 방식이었다면, ‘빈방의 서사’는 예술가들이 자신이 사용할 빈 공간을 직접 찾아냈다. 시작이 다르니 결과도 달랐다. 바닷가 빈집, 시장 안 빈 점포, 도심 주택 옥상까지 문화예술교육이 진행될 장소도, 그 안에서 펼쳐지는 프로그램도 다양했다.

김덕희 작가는 다대포의 빈집을 선택해 시간을 기억하는 공간으로 변화시켰다. 김보경 작가는 장림 시장 안 빈 점포에서 일상 속 예술을 경험하게 했다. 여상희 작가는 아미동 비석마을 전망 좋은 집을 발굴했다. 왕덕경 작가는 초읍 주택가 옥상에 엄마들의 공간을 새로 만들었다. 정만영 작가는 초량동 뒷길에 숨어있던 멋진 주택을 찾아냈다. 각각의 ‘빈방’을 마주할 때마다 “이런 곳이 있었다네!” 감탄했다. 도시의 빈 공간이 얼마나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빈집에 기록된 시간

사람은 사라졌지만, 집의 시간은 남아있다. 서구 아미로12번길 9-20. 여상희 작가가 교육을 진행한 비석마을 꼭대기에 있는 집은 역사 그 자체였다. <집의 순환> 자료집에서 송혜영 부산시 문화재전문위원은 내부 천장을 구성하는 판자에 새겨진 일본 상점 상표, ‘PUSAN, MADE IN JAPAN’ 같은 문자에 주목한다. 그는 ‘건물을 지은 이가 한일수교가 이뤄진 1965년 이래 부산항 부근에서 생계를 이었을 거라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고 밝혔다. 벽지 아래 붙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오래된 <부산일보>, 고인이 된 집주인이 모아둔 옛 물건은 거주자 개인의 역사를 넘어 지역의 역사까지 엿보게 만든다. 초량동의 주택은 들여다볼수록 새로운 것이 보인다. 주민들은 1966년에 지어진 이 집을 ‘수영장이 있는 집’으로 기억한다. 마당이 아닌 건물 지하에 수영장으로 추정되는 공간이 있다. 창틀, 채광창, 굴뚝

등 집을 구성하는 요소 하나하나가 흔히 볼 수 없는 모양새를 갖고 있다. 시간에 더해 가족을 위해 집을 지었다는 가장의 마음까지 곳곳에 남겨져 있다.

공간 외부, 지역 재발견

“주민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공간을 알아가고 집과 주변에 얽힌 사연, 역사를 알아가게 된다.” 정만영 작가는 빈집을 탐구하는 과정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다. 그는 초량동 빈집에서 <되돌아가는 시간 위에 서다>를 진행했다. 빈집 탐구 과정에서 예술가는 영감을 얻고, 주민은 잊고 있던 ‘우리 동네’를 다시 본다.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참가자는 ‘내가 모르는 집과 마을’을 알게 된다. 도시의 숨은 공간을 조명하고 이야기를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빈집에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 부산의 이야기를 발견한다. 이것은 지역 문화예술교육이 추구해야 할 중요한 가치다.

아미동 빈집은 비석마을 전체를 문화예술교육 안으로 끌어들었다. 마을기업인 아미맘스 회원이 안내하는 비석마을 투어로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비탈진 동네 골목을 따라 비석마을 구석구석을 돌아봤다. 마을 활동가가 살아온 시간만큼 이야기는 더 풍부해진다. 여상희 작가는 빈집의 방 한 칸을 신문으로 만든 집을 해체한 것으로 채웠다. 한때 사람이 살았던 집이 흙이 되고 먼지가 되어 자연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표현한 것이다.

작가는 마을 곳곳 옹벽에서 자라는 고사리를 빈집 안에 옮겨 심었다. 집 뒤 빈터, 빈창고에 심은 고사리는 마을의 자연을 안으로 끌어들인다. 동시에 교육 참가자들로 하여금 집 밖, 아미동의 자연을 생각하게 만들었다. 아미동 집은 집주인이 생전에 ‘바람도 구름도 쉬어가는 전망대’라고 이름 붙였을 정도로 전망이 좋다. 앞마당에서 아

» (왼)서구 아미동 <집의 순환>
 » (오)사하구 다대포 <시간의 서(書)>



미동 전체는 물론 부산항까지 펼쳐지는 시가지 전경을 즐길 수 있다. 거기 서있으면 지역에서 비석마
음이 어떤 위치를 갖고 있는지와 빈집의 존재가치 등을 생각하게 된다.

다대포 바닷가 작은 집에서는 미처 몰랐던 '포구 다대포'를 만난다. 양식장에서 걷어온 파래 냄새가
공기 중에 떠돌고, 바다 건너편으로 보이는 성창기업 목재 집하장은 생경한 풍경을 선사한다. 물론대
2길의 끝, 팔봉섬 방파제로 이어지는 지점에 있는 빈집에서 다대포 재발견을 경험한다.

홀로 있지만 혼자가 아닌

김덕희 작가는 팔봉섬 방파제를 '시간의 길'로 만들어 시간 산책을 하도록 했다. <시간의 서(書)>라는
교육명 그대로 참가자들은 자신만의 시간에 대한 책을 만든다. '나의 시간'을 사색하며 시간은 관계
속에서 더 큰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깨닫는다.

'도시 속에 이렇게 조용한 동네가 있나?' 한낮인데 새소리만 들리는 동네. 부산진구 초읍동 원당골은
집들이 낮고 포근하게 둘러싸인 느낌을 줬다. 왕덕경 작가는 원당골 단독주택의 옥상에 엄마가 <잃
어버린 이름>을 찾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사회적 단절과 자기 소외를 경험하는 엄마가 오롯이

» 동구 초량동 <되돌아가는 시간 위에 서다>, <촉각적 소리 산책>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방. 참가자들은 이곳에서 엄마인 자신과, 자신의 엄마를 떠올리고 기록한다. 그리고 세상의 다른 엄마들에게로 생각을 이어나간다. ‘빈방의 서사’는 비대면 시대에 딱 맞는 프로그램이다. 코로나19로 문화예술 현장에서 거리두기는 필수이다. 지역 빈 공간에서 1인 문화예술교육을 진행한다니 이보다 더 적절한 것이 있을까. 하지만 혼자라고 해서 자기 안에 갇히는 것은 아니다. 빈 공간 내부를 들여다보는 것에서 시작해 바깥으로 시야를 확대한다. 개인에서 사회로 사고를 확장시켜 간다.

빈 공간, 가능성의 공간

‘빈방의 서사’가 여러 의미에서 색다를 수 있었던 것은 예술가들 덕분이다. 지역 속 숨은 공간을 찾아내고, 공간의 이야기를 민감하게 읽어내고, 공간에 어울리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냈다. 김보경 작가의 <안으로의 길>은 사하구 장림시장 상인과 주민들이 미술 세계를 놀이처럼 즐기게 했다. 스스로를 표현하는 몸의 움직임으로서의 그림, 자신의 마음을 풀어놓은 그림을 통해 미술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만들었다. 정만영 작가는 소리 채집을 통해 도시가 가진 무수한 소리에 귀 기울이게 했다.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지켜보며 코로나와 운영 기간의 제한 때문에 더 많은 이들이 팬츠는 프로그램을 체험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이 아쉬웠다. 교육 프로그램 일부를 온라인도 가능하도록 설계해 참여 확대를 꾀했어도 좋았을 것이다. ‘빈방의 서사’에 참가한 한 시민은 빈집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의 상설화를 제안했다. 도보로 이동 가능한 구간 내 빈집 몇 곳을 연결해 문화예술교육지구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다. 그는 일본 나오시마의 ‘이에(家)프로젝트’처럼 기업들이 빈집을 구매해서 문화예술교육 공간으로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방식을 이야기했다. 이곳에서 지금껏 재단이 보여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중 일부를 장기 프로그램으로 진행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문화예술의 접근성을 높여주고, 문화예술로 소통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이 단계별로 장기 플랜을 가지고 진행되면 좋겠다. 교육 수혜자의 특징에 맞춰 수평으로 세분화되고 수직으로 심층화되면 교육 만족도도 더 높아질 것이다. 도시에는 다양한 공간이 필요하다. 비어있는 공간을 버려진 장소, 무용의 장소로 보는 것이 아니라 쉬어갈 수 있는 공간, 새로움을 채울 수 있는 공간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도시의 빈방은 문화예술로 재발견을 경험하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 (위)서구 아미동 <집의 순환>
» (아래)사하구 장림동 <안으로의 길, 사랑의 공간>







상상력으로 채워가는 새로운 시대의 희망

글. 김태희 영산대 문화콘텐츠학부 교수

코로나는 비대면 관련 산업을 크게 활성화시키고 있다. 그중에 요즘 많이 떠오른 것이 '메타버스'이다. 메타버스는 초월을 의미하는 'Meta'와 세계를 뜻하는 'Universe'가 접목된 합성어이다. 나를 대신하는 캐릭터를 내세울 수 있으며 가상공간 안에서 활동하는, 마치 게임과도 같은 그래픽의 가공된 세상이다. 친구를 만나고, 업무를 하고, 쇼핑도 하는 등 일상에서 하는 활동을 그래픽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것이다.

많은 회의, 수업, 세미나, 학술대회가 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처음에는 낯설게 느꼈는데 그것도 잠시, 이제는 줌으로 회의하는 것이 편하게 되었다. 돌이켜 보면 왜 진작 그렇게들 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좋은 점들도 있다. 직접 대면하지 않고 먼 곳의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 아바타를 내세워 가상공간에서 활동하는 것이 실세계에서의 참여와 경험을 충분히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서 거기에 더해 아날로그 실세계에서는 어렵던 일까지 가상의 세계에서 손쉽게 가능하다. 이는 컴퓨터가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도구와 재료는 예술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많은 예술가들이 다양한 도구와 재료를 실험해왔고 그 결과 새로운 모습의 예술이 제시되어왔으며 그러한 실험은 계속되고 있다. 컴퓨터는 초기부터 예술의 실험도구였기도 한데, 컴퓨터는 정말 끝없는 변주를 낳는 신통방통한 물건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컴퓨터와 네트워크가 만들어내는 광활한 가상의 세계는 그 끝을 알 수 없다. 컴퓨터와 컴퓨터가 만드는 세계는 예술의 매체로도 매우 흥미롭다.

우리에게 중요한 전환점을 가져다준 도구에는 불, 바퀴, 전기와 같은 것이 있으며 이들은 산업혁명을 촉발시키기도 했던 뜻깊은 도구들이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도구 중에서 아마 가장 극적인 전환을 가져오는 도구는 컴퓨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컴퓨터가 이전의 도구들과 다른 중요한 점은 프로그램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우리의 컴퓨터들은 프로그램을 짜 주는 대로 작동한다. 말 그대로 컴퓨터를 사용자가 뜻하는 대로 일하도록 프로그램하는 것이다. 프로그램 가능하다는 것은 하나의 컴퓨터 하드웨어가 끊임없이 변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서작성기를 돌리면 문서작성기가 되고, 그림을 그리려면 포토샵을 실행시키면 된다. 삽을 경운기로 변신시키는 불가능한데 컴퓨터에서는 삽을 순식간에 경운기로 변신시키는 것과 같은 일이 순식간에 일어나고, 심지어는 삽과 경운기를 동시에 띄워놓고 번갈아 가며 쓸 수도 있는 격이다.

컴퓨터에서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다른 프로그램의 일부가 되도록 불러다 쓸 수 있다. 우리의 도구는 끝없이 능력을 집약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며, 이러한 능력은 Ctrl+C / Ctrl+V 하여 복사를 통한 재사용 또한 쉽다. 고도로 발달한 컴퓨터 기술은 매우 복잡한 유기적인 내부 기능의 구조를 가질 수 있다. 복잡하다 보니 종종 수학의 힘을 이용하기도 한다. 인공지능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우리가 이제 자연지능의 비밀과 같은 어떤 복잡한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를 찾기 시작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정말 혁명과 같은 하나의 새로운 시작이다.

4차 산업혁명은 사람들의 컴퓨터 이용 능력이 어떤 임계점을 뛰어넘기 시작한 결과로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4차 산업혁명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것은 아니다. 인간이 그동안 쌓아온 문명, 그 속에 담긴 지식과 지혜가 컴퓨터와 만나기 시작하면서 싹이 자라기 시작한 것이라 하겠다.

갑자기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인공지능은 그 본 모습을 종잡기 힘들다. 이는 인공지능이 무척 많은 분야와 깊이 있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공지능은 컴퓨터와 우리의 지식과 상상력이 만나서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인공지능과 함께 컴퓨터 기술은 앞으로 많은 것을 바꿔놓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코로나를 만나서 더욱 가속이 붙은 것 같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교육에 대한 배려는 중요하다. 수년 전부터 (재)부산문화재단은 과학과 예술을 접목하여 창의성 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일을 시도해 왔다. 2020년에는 부산농악과



인공지능을 접목하는 교육을 연구하였다. 이러한 과학과 예술을 접목하는 교육적 시도는 '생각의 체력'을 기르는 방향으로 수렴한다. 생각의 체력을 기르는 일은 창의성으로 연결될 것이며, 이는 4차 산업혁명에 꼭 필요한 덕목일 것이다.

앞으로 더욱 필요로 하는 능력은 문제를 푸는 능력이 아니라 질문하는 능력, 그리고 풀어야 할 문제를 찾는 능력이라고 한다. 문제를 찾는 능력을 가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창의력과 열정일 것이라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대목에 있어서 예술은 교육에 많은 기여가 필요하리라 하겠다.

메타버스의 가상세계에서나, 컴퓨터를 이용한 문제해결에서나, 인공지능의 효과적인 활용에서 생각의 힘과 창의성은 중요한 돌파구를 보여줄 수 있다. 예술은 인간과 인간 사회를 다양한 관점에서 알아가게 하고, 문제를 발견하게 하고, 소통하게 하여 조화롭게 하는 역할을 한다. 예술은 우리에게 주어진 도구와 재료를 활용하고 상상력을 발휘하여 새로운 것을 찾아가고 만들게 한다.

어떠한 도구도 사람이 만드는 것이며, 어떠한 세상도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니 문제도 사람 속에, 답도 사람 속에 있을 것이다. 문화예술은 사람과, 사람들이 만드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이며, 혼돈의 변화 속에서 문제를 찾고 답을 찾아가는 길을 비춰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Artist Guide



인터뷰어. 심문섭 '예술은공유다', '어댑터 스페이스' 대표
인터뷰어. 주혜자 '극단 배우, 관객 그리고 공간' 상임연출, 연극연출가

뉴택트 시대를 향해하는 예술가를 위한 안내자

심문섭 대표

심문섭 대표는 2017년 법인 주식회사 '예술은공유다'를 설립했다. 이로부터 강렬한 아우라와 메시지를 품은 '예술은공유다'는 지역과 장르를 넘나들며 왕성하게 활동 중이다. 그리고 2021년, 있던 극장도 없어지는 이 시국에, 광안리 한복판에 디지털 복합 공연장을 개관한다. 부산 대표 관광지에 디지털 공연실험예술의 산실이라니, 호기심과 설렘을 안고 개관 일주일 전 복합공연장 '어댑터 스페이스'를 찾았다. 코로나19도 막지 못한 심문섭 대표의 에너지의 원천은 무엇인지 인터뷰로 확인해보자.

●..... → **설립자이자 대표로 계신 '예술은공유다'는 문화예술계에는 생소한, 무려 '법인 주식회사'군요.**

2017년도 2월에 제가 큰 수술을 했어요. 병실에 가만히 누워서 생각하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예술가들이 창작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부족한 겁니다. 관객도 볼거리가 없고요. 제가 직접 작품을 연출하는 것보다 시급한 것이 아티스트 창작 기회 마련하고 그것이 문화예술정책으로 정착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예술은공유다'는 창작의 기회를 확장하는 제작사, 혹은 기획사입니다. 연극, 마술, 뮤지컬, 음악 등 다양한 분야의 아티스트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기관과 아티스트를 잇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고, '예술'을 널리 '공유'하겠다는 취지로 설립되었습니다. 관공서나 기관에서는 귀에 속 들어오는 이름이라고 잘 기억해주시더군요. 부산시 축제조직위원회에서 주최한 '부산향축제' 개막 공연을 해마다 준비하고 있고, 부산문화재단 10주년 행사 연출, 한성1918에서 열린 생활문화동아리 행사도 진행했습니다.

- → **코로나19와 함께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오르락내리락하는 단계별 방역지침을 체념하듯 받아들이고 있는데, 대표님은 코로나19 상황이 무색할 정도로 많은 작업을 하셨어요.**

작년을 떠올리면 아마 모든 분들이 어떤 질문을 받든 머리가 새까매지지 않을까 싶어요. '무엇도 확신할 수가 없다', '계속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기다림도 기약은 없다'의 반복이었죠. 저도 포스트코로나의 문화예술에 대한 방향성을 연구하고 실험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가장 큰 화두는 공연예술과 디지털 기술의 결합이었습니다. 9월에는 <맥베드 부인의 내조>가 스트리밍 중계로 '세계여성공연예술축제'에 선보였습니다. 11월에는 실제 향해하는 요트에서 공연하고,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관람하는 실경연극 <모비딕>을 성주원 연출과 진행했고, 12월에는 경성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연구 개발한 <셀프 포트레이트>를 공연했습니다. 30여 개의 스마트폰으로 영화전공 학생들의 카메라 기술을 활용해서 현장 관람객의 시선으로 스트리밍하고 다른 관객들은 영상으로 실시간 관람하는 형태의 공연이었습니다. 1월에 온라인으로 일종의 오픈런 업로드한 <햄릿의 귀향>은 그보다 앞서서 영상을 통한 연기, 연출, 공연을 고민한 작품입니다. 연출, 영화배우, 작가로 다방면에서 활약 중인 양지웅 배우와 함께 작업하면서 기술이 어디까지 와있는지 확인했죠.

- → **'언택트', '뉴노멀'의 합성어인 '뉴택트 시대'라는 용어까지 등장했습니다. 관객을 대면하지 않는 것이 아닌, 새롭게 만나는 지점을 고민해야 하는 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전년도 작업에서 비대면 공연 콘텐츠의 실험과 연구에서 많은 한계에 부딪혔을 것 같습니다.**

앞서 미뤄온 문제들이 결국 코로나19로 가속화되고 문화예술 분야는 거의 발등에 불이 붙은 상황이죠. 한계나 과제라기보다 오히려 명확한 두 가지의 전제에 다다랐습니다. 첫째, 디지털 기술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자본을 포함해서 다양한 분야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재원을 바탕으로 한 기술연구와 이를 겁내지 않고 도전하는 예술가들의 창작정신이 만나야 하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한 접점 중 하나가 '다원예술'분야의 지원 사업인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다원예술'분야는 2017년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 사라졌다가 올해 겨우 복원 준비 중이고, 지역문화재단에서 명맥을 이어왔던 '다원예술'도 장르 복합이 아닌 기술과의 진정한 융·복합 결과물은 극히 드문 상황입니다. 예산 규모의 기준차가 크기 때문에, 예술 분야의 기준으로 기술 분야에 접근하면 퀄리티와 범용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기술과 예술의 실험에 대한 예산 규모 및 재원을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어댑터 스페이스

둘째, 기술 분야는 특히 지역예술가들이 접근하기 쉽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예산 규모가 중앙과 지역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라도 프로젝트를 접할 기회가 적은 거죠. 자본을 바탕으로 하는 기술 분야에 대한 지역 예술인들의 무관심과 무지는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 '디지털 부익부 빈익빈'으로 이어지고 고립과 도태를 가속화시킵니다. 이게 사실은 가장 힘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고를 유연하게 해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그걸 공유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있던 지원제도를 세금 낸 사람들 눈치 보면서 싹둑 잘라내거나 연기한다고 해결되지 않죠. 비단 문화재단에 국한된 책무는 아닙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대면'이 '대면 못 한다'가 아니라 '새롭게 대면한다'로 기관과 예술가, 국민 모두가 사고의 전환을 해야죠. 그 과정에서 이 상황을 헤쳐 나갈 방법을 모색하는 소통과 공감, 인식 변화의 자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 → SNS를 비롯해 '줌', '유튜브', '네이버 TV' 등의 매체들이 이미 너무 익숙해졌죠. 화상회의, 화상 연습, 화상 파티, 영상 공연, 온라인 축제 등 문화예술작업도 다방면에서 디지털화되고 있습니다.

농담처럼 얘기를 하지만 한국 연출이 아침에는 그리스 배우들과 '오이디푸스'를, 낮에는 영국 배우들과 온라인으로 '햄릿'을 작업하고, 저녁에는 노르웨이 배우들과 '인형의 집'을, 새벽에는 미국 배우들과 '세일즈맨의 죽음'을 작업하는 날이 옵니다. 넷플릭스 '승리호'에서처럼 국경도, 언어도 장벽이라고 볼 수 없는 시대가 왔어요. 지금 당장은 '유튜브'나 '줌'에 기울어져

있지만, 5G를 기반으로 AR, VR, 홀로그램의 상용화를 비롯해 새로운 플랫폼과 기술들이 쏟아져 나오면 우리 삶은 앞으로 달려가는 정도가 아니라 멀미를 동반한 '점핑'이 일어납니다. 지금 대학생들보다 더 다음 세대, 10년 뒤에 있는 초등학교 6학년이나 지금 초등생들은 '점핑'이 이미 시작됐죠. 개들은 사고가 우리하고 아예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10년 후, 20년 후에 그 친구들과 작업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큰 위기죠. 그렇다면 당연히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적응해왔던 경험들로, 앞으로 더 많은 시도들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개관을 준비 중인 '어댑터 스페이스'가 심문섭 대표님의 '시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 → **작년에 부산의 소극장들이 줄줄이 폐관하는 위기를 지켜보셨을 텐데, 새로운 공연장을 연다는 건 대단한 용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연 및 영상 시스템을 구축한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한 '어댑터 스페이스'가 부산 공연 실험의 산실이 될 것 같다는 예감도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빛에 빛을 더하는 상황이지만, 늦출 수가 없었습니다. 부산 소극장의 위기는 이전에도, 코로나 때문에도, 또 앞으로도 사라지지 않겠지만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도전을 멈춰선 안 된다고 생각해요. 식상하지만 위기가 새로운 기회를 만든다는 말처럼, 올해처럼 많은 공연 예술가들이 디지털 기술과 함께 결합할 수 있는 공간이 절실했던 적이 없었기에 '어댑터 플레이스'를 오픈하게 됐습니다. 열린 공간이 필요한 사람들, 그들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는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작품보다 '사람'이라는 콘텐츠에 중심을 둔 공간을 지향하고



» 어댑터 스페이스

요. 예술작품의 디지털 구현, 혹은 작품 자체, 작품 형식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디지털의 끝은 오히려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퍼포먼스'보다 '퍼포머'와 '아티스트'에게 집중된, 그들을 더 부각시키고 소개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시도 중이지만, 민간에서는 감히 전국 최초로 만들어진 스튜디오형 공연장이 아닌가 추측해봅니다. 전국 최초의 해변전망 극장이기도 하고요. 단순한 공연장에 그치지 않고, 영상매체와 극장이라는 또 다른 매체를 접목해서 멀티포맷의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창작, 생산, 공급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창작자들을 매니지먼트하는 기능도 수행할 예정입니다. 시나 빅데이터를 활용한 공연·영상의 개인화 및 개별화 고객 전략을 갖추고, 오픈소스 확장을 통해 '어댑터'라는 이름처럼 서로 다른 것을 연결해서 작동하도록 하고요. '어댑터 스페이스'는 광안리 바다를 볼 수 있다는 특징도 있지만, 가변형 무대, 이동형 객석으로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다는 것이 매력입니다. '레고'를 떠올리면 이해가 쉬울 것 같네요. '당신이 원하는 무엇이든 이룰 수 있는 디지털 결합형 레고 공간'이랄까요. 정서적으로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능하도록 차근차근 갖추어나가려 합니다.

개관 전 3월 26일에 공연하는 '라트라비아타'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라트라비아타'는 연극과 오페라가 결합하고, 실외와 실내가 결합하고, 작품 내의 영상과 실시간 관람을 위한 영상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30대의 카메라가 동시에 360도로 촬영한 영상이 온라인으로 전송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결제 플랫폼까지 결합되어 있죠. 말 그대로 서로 다른 것들이 만나는 장소가 바로 '어댑터 스페이스'입니다.

●..... → **백신 접종이 진행되는 한국을 비롯해 전 지구가 면역력을 키우고 있는 지금, 지역문화예술인들에게 백신이 될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부산은 어촌이라 그런지(웃음) 아직까지는 조금 멈춘 듯, 멈치하면서 덤비지 않는다는 느낌이 있어요. 지역은 태생적으로 중앙과 비교하면서 위축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이 그런 두려움을 떨치고 지역의 색깔을 드러낼 기회라고 봅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색을 빛내지 않으면 보석을 손에 쥐고 매양 돌멩이로 만드는 것과 같아요. BTS란 보석도 발견되기 전에는 때는 그냥 노래하는 젊은 친구들이었잖아요. 우리가 BTS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발견해야 해요. 그 발굴 현장에 '예술은 공유다'와 제가 지역 예술가들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길 바라구요, 더불어 '시야가 확 트이는 스튜디오형 공연장, 모두의 꿈이 이루어지는 디지털 결합 레고 공간, 어댑터 스페이스도 아티스트들에게 영감을 주는 곳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극장등록도 되어있으니, 창작자 여러분의 거침없는 실험과 도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감 리뷰

030 아이러니가 교차하는 시범(示範)도시







아이러니가 교차하는 시범(示範)도시

글. 홍순연 삼진이음 이사

건축가들이 만든 오브제 공간 속에는 몇 가지 키워드들이 존재하는 듯하다.
마치 코로나가 가지고 온 다양한 모습이 공간 속에서
“아이러니하게, 상황들이 변화되었어. 그렇지만 다시 일상은 회복될 거야”라는
메시지를 함께 전달하는 듯했다.

“건축의 어원은 ‘으뜸이 되는 기술, 기본이 되는 기술’입니다.”

건축학개론에서 건축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건축을 소개하는 첫 번째 말이다. 건축이 기본이 되는 기술이라 칭하는 것은 건축이 조형물 자체로서의 의미보다,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삶, 시대의 정신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신적인 부분으로 건축을 이야기하다 보면 건축이란 결과물이 아닌 과정,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인 이야기를 함께 담고 있는 형상물로 이야기된다.

기술은 어떠한가? 프로세스적이나 이것의 실천적인 적용과 사물을 제작하는 과정 또한 인간의 진리를 찾아가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 결국 건축을 우리는 물리적 형태로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담론과 시대를 담고 품고 있는 부분이 더욱 부각되어야 한다. 그 중 시대성은 사회적 가치를 어떠한 관점으로 품고 있는가에서 시작된다. 과거부터 무수히 많은 건축물이 시대성을 품고 시대적 담론의 결과물이 나타난 형상으로 지금까지 존재해 왔다. 시대성이 결국 사람이 만들어내는 생각을 반영하는 것이라면, 무엇보다 사회적 요소들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생각을 사회에 다시 환기시켜 줄 수 있는지를 건축가에게 요구하게 된다.

2020년부터 지금까지 코로나19는 재택근무,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등 사람들의 일상의 대변혁이 일어난 해이다. 사회라는 굴레에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는 걸 실감하고 있고 있다. 자연스럽게 웃고 떠들고 공간에 밀착해서 서로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일상이 이제는 생각만으로 만족하는 날로 바뀌면서 과연 이 시대를 건축가들은 어떠한 고민으로, 어떠한 시대성을 반영하였는지 궁금한 차에 <혁명은 도시적으로>를 보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혁명은 도시적으로>가 강렬하게 들어오는 것은, 총돌과 통섭이라는 키워드를 도시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논의이니, 사실 다른 오브제가 아닌 도시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관심과 이름에서 나오는 강렬함이 더해져, ‘재정비적 측면보다는 변혁적 측면으로 실험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 권력이나 조직구조의 변화를 기존의 방식과 제도를 깨고 새로운 것을 급격하게 세우는 일이라는 의미에서 읽히듯이 우리가 알고 있는 공간적 통념을 전환하는 작업이 작가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했던 것 같다. 특히 건축가들이 만든 오브제 공간 속에는 몇 가지 키워드들이 존재하는 듯하다. 마치 코로나가 가지고 온 다양한 모습이 공간 속에서 “아이러니하게, 상황들이 변화되었어. 그렇지만 다시 일상은 회복될 거야”라는 메시지를 함께 전달하는 듯하였다.

아이러니의 반향과 결합체

코로나는 나의 고정된 관념과 다른 현상이 만나는 시기인 듯하다. 이러한 아이러니한 모습들을 만나 하나로 합쳐지는 과정이 작가들의 작품에 담겨있는 듯했다. 우선 우신구 작가의

» 다시 익숙함으로
동화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표응석작 이기철작



재개발 정원과 이기철 작가의 「코로나 그리드」는 코로나 이전의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듯하다. L형강으로 적재된 모습은 일상적인 공사현장의 파편처럼 보이지만, 삭막함 속에 이들이 자연스럽게 거닐면서 움직임을 만들어 내는 모습이 마치 놀이터 같기도 했다. 어색한 오브제 속에 그리드화된 체계를 깨트리는 것들이 바로 사람의 움직임이라는 것을 보면서 도시가 가지고 있는 혁명은 바로 사람임을 직결하여 말하는 듯하다. 우신구 작가의 「재개발 정원」은 코로나 시대임에도 인간 욕망의 끝을 잡는 현상들이 다시 회귀되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 지금 상황이 그리 나쁘지 않음을 이야기하는 듯하다. 표응석 작가의 「코로나 웨이브」는 펼쳐진 대지가 사회적인 변혁을 통해 지각변동을 일으킴에 따라 주름 잡히는 모습으로 변했지만, 그럼에도 대지는 다시 익숙한 자연의 모습으로 동화됨을 의미하는 듯하다. 마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간의 축이 두 갈래로 나누어졌다 다시 합쳐지는 과정들이 아이러니한 공간과 시간을 품고 있는 듯하다.

현 상태들의 파편들

막은 안과 밖의 경계를 말한다. 한편으로는 아늑함을 주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공포와 긴장을 함께 제공한다. 특히 김성률 작가의 「공간의 주인은 누구인가?」는 공간에 주인을 규정하는 것보다, 마치 둘러싸여 있는 여러 개의 모습들이 공간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듯했다. 반대로 원호성 작가의 작품은 시스템화된 규칙들, 예를 들면 사회적 거리두기 1m의 규칙이 결국 공간의 외피를 둘러싸고 있지만, 새롭게 만들어진 시스템이 질서와 통제같이 보이지만, 그리고 그 속에 단절되어 보이지만, 삭막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우리의 모습을 속 깊이 들여다봐야 한다는 또 다른 메시지를 전달하는 듯하다. 김유진+김병찬 작가의 감각



» 규정화된 공간내외부의 파편들과 둘러싸이 보여주는
김성률작 원성호작

의 충돌, 사고의 확장은 공간 속에서 경험해가는 과정이 서로의 시선의 막을 만들어 전체보다는 일부를, 일부 속에서 서로 다른 모습을 만들어 냈으로써, 결계를 만들 냈으로써, 서로 다른 공간의 확장을 틀 안에 가두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성호 작가의 「표리」는 커다란 의자에 앉아 관망하는 모습의 오브제가 미술관 뒤편에 앉아있었다. 그의 작가노트에 적혀있듯이 서사적인 이야기들을 들어주고 포근함과 후련함, 가벼움과 자유로움을 느끼게 함으로서 현 상황을 관망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듯하다. 즉 우리가 도시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 틀의 안팎에서 다양한 내용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마치 우리들의 현 상황을 표출하는 듯하였다.

일상 속으로 가는 길

그럼에도 우리는 혁명적인 반항을 기대하지만, 공간은 일상 속에 존재함을 잊지 말 것을 기억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 기억들이 변화된 일상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치유됨을 의미하는 작업들이 표현된 듯하다. 이원영 작가의 「untact를 넘어 contact로」는 다시 안정화된 사회로 돌아갈 것이라는 희망과 안도가 보였으며, 여창호 소장의 작업은 우리가 집에서 하는 행위의 반동을 좀 더 넓게 만들어 줄 수 있도록 공간을 변화시키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 공간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에 집중하여 밖에서 회복하지 못한 가장 자연스러운 욕구들을 전통적인 방식으로 되새김질하는 듯하다. 안용대 작가의 「zip」은 사회적 시스템의 불안과 방어적 기제 그리고 상황에 따라 접촉하지 못하는 사물에 대한 상징이라고 하지만 결국, 이 견고함 또한 이전에 그랬듯이 파편이나 가변적으로 변할 것임을 암시하는 모습으로 와 닿았다. 이러한 작업들은 시대를 반영하는 불편함을 표현하는 방식보다는, 익숙함을 통해 우리가 변화되더라도 본질은 변화되지 않을 것임을 확증하고 있어 마음 한구석에 안도감이 밀려오기도 했다. 과정이 힘들 뿐이지 그 과정이 도달하는 끝에는 우리의 삶이 유지될 수 있을 듯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혁명엔 도시적으로>는 건축가의 새로운 도전이 아닌 시대에 필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창구라고 생각한다. 새로운 사회적 변화는 언제든 왔다. 강력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그 변화는 다시 과정을 통해 결과물을 만들어내 가는 모습들로 나타난다. 그리고 결과와 평가는 지금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달자 역할만이 존재한다. 우리에게는 그 결과물을 하나의 오브제에서 찾는 것보다, 11명 작가의 생각을 공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그 생각들이 모여 담론이 되고 그 담론이 다시 역사를 만들어 가는 과정을, 그 순간을 우리는 다행스럽게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그 순간의 경험과 과정이 혁명이 되는 그날은 사회의 결과물인 건축으로, 공간으로, 시스템이 될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것이다.

» 어색하지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보여준
여창호작 이원영작





B- Side

038 예술, 목적지가 되고 여행이 되다



이름난 명소, 랜드마크, 그리고 맛집. 사람들의 관심이 곧 여행과 관광의 동기가 되고 목적지가 된다. 그렇다면 예술이 그 목적지가 될 순 없을까? 인바운드 여행지 부산을 그려본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문화예술을 그려본다.

예술, 목적지가 되고 여행이 되다

글. 이상훈 드림원정대 대표

필자는 10여 년간 아트 트래블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당시 해마다 여행 산업은 성장하고 있었고, 저가 경쟁에 빠진 일반적인 여행지 위주의 패키지여행에서, 전문성을 통해 테마를 가진 상품들이 만들어지는 트렌드를 읽을 수 있었다.

와이너리 투어, 갤러리 투어, 트래킹/골프 투어와 같이 식도락, 미술, 스포츠 프로그램 등 차별화된 내용을 프로그램으로 한 여행상품은 해당 분야의 차별화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장에서 테마여행 관광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우리 회사의 경우는 클래식과 오페라 그리고 음악축제를 전담 프로그램에 내세웠고, 이는 생각보다 주효했다. 2010년 창업 당시 국내에서는 이렇다 할만한 경쟁회사가 없어, 시장에 빠르게 진입해 블루오션의 길을 걸었다.

베를린필하모닉, 빈필하모닉, 런던심포니, 암스테르담 콘세르트 허바우 등의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만나기 위해 해당 도시를 찾거나, 뉴욕 MET, 파리 바스티유, 빈 슈타츠포퍼, 밀라노 라스칼라와 같은 세계적인 오페라 무대에서 그들이 선보이는 오페라를 만나는 게 일이었다. 또한, 축제가 열리는 여름 시즌이면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루체른 페스티벌과 같은 세계적인 음악축제 도시에서 다양한 연주 프로그램을 만나고 브레겐츠, 베로나, 오페라 축제 현장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오페라 프로덕션을 만날 수 있었다. 그리고 프로그램은 미술 축제와 건축으로도 확장되었다. 해마다 개최되는 스위스 바젤, 미국 마이애미 비치, 홍콩에서의 아트 바젤, 런던과 뉴욕의 프리즈 그리고 5년에 한 번씩 열리는 카셀 도큐멘타와 같은 미술 프로그램도 이내 자리매김했다.

건축을 전공한 나로서는 르코르뷔지에, 루이스 칸과 같은 거장의 건축작품과 프랑크 게리, 헤르조그



» 루체른 페스티벌



»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뒤 뒤롱, 루이 바라간과 같은 프리츠커 수상자들의 건축물을 탐방하는 투어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덕업일치의 길이 어려울까? 평소 좋아했던 음악, 미술, 건축을 만나는 것이 일이 되었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작품을 만나기 위해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전 세계를 여행하며 종횡무진 10여 년을 보냈다. 형식적으로는 프라이빗한 구성원으로 여행 상품을 꾸려나갔기에 불황도 없었고, 해마다 50% 가까이 성장하던 회사의 양적 매출과 더불어 프로그램도 다변화되고 구체적으로 진화하였다. 초창기 오페라 아이다를 베로나 오페라 무대에서 만나고, 빈필하모닉을 뮤직페라인에서 만나는 것만으로도 영광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요나스 카우프먼, 안나 넵트랩코와 같은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가 출연하는 오페라의 캐스팅과 연출자까지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했다. 양적·질적으로 고객과 함께 성장한 것이다. 하지만 2020년 초 세계를 팬데믹으로 물고 간 코로나를 피할 갈 수는 없었다. 세계 경제는 멈추었고, 우리의 일상은 하루아침에 바뀌었다. 비대면이 일상화되었고, 문화계 역시 긴 침체기 속으로 빠져나갔다.

세계 각국의 극장은 문이 닫히었고, 계획되었던 페스티벌은 무기한 연기되었다. 이는 문화예술계 뿐이 아니다. 2020 이웃의 도쿄 올림픽 같은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도 마찬가지이다.

클래식 음악축제의 블록버스터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의 경우는 2010년 100주년을 맞아 여느 해와 다르게 최고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지만, 취소와 연기를 연거푸 반복하다가 축소해서 개최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국내의 공연시장 사정은 조금 달랐다.

초연 이래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던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이 십수 년 통련하던 런던 허머저스티



» 부산 국제아트센터 조감도. 사진 제공. 디자인랩프 문바 디앤피



» 부산 북항 오페라 하우스 조감도. 사진 제공. 부산광역시

극장에서 그 상징과 같은 상들리에 무대장치가 해체되었다는 슬픈 뉴스가 해외 기사를 통해 전해 올 때, 대한민국 서울과 대구 그리고 부산에서의 오페라의 유명 공연팀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공연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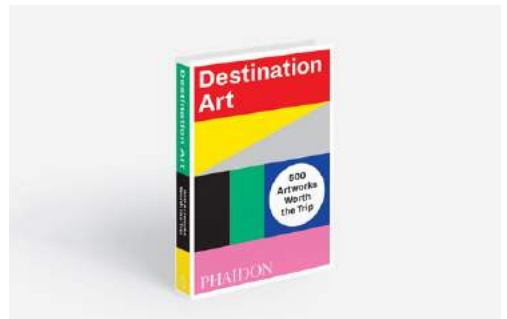
일부 축제는 여전히 취소되고, 연기되었지만 대관령국제음악제, 통영 국제음악제 등은 띄어앉기라는 핸디캡 속에도 관객맛이를 하였다. 많은 산업들이 조금씩 지지개를 펼치고 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증시는 반대로 그 어느 때보다 호황이기도 하다.

몇 가지 아쉬운 측면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정부는 방역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비대면을 활용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로 현재의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고 있다.

문화산업과 관광산업은 팬데믹 상황 속에서 가장 어려운 분야의 일이다. 관광의 경우는 잠정적으로 멈추어 있다. 비대면이라고 하는 핸디캡을 뛰어넘기 어려운 특징이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공교롭게도 코로나 대유행의 시작과 함께 2020년 부산은 국제관광도시에 선정되었고, 원년을 맞이했다. 그와 함께 시민공원에서는 국제아트센터가 착공되었고, 북항 재개발 단지 내에는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오페라 하우스도 공사 중이다. 민간에서는 동남권 개발의 핵심인 오시리아에 문화예술타운도 건립 예정에 있다.

이렇듯 도시의 퍼실리티 중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문화 시설도 확충되는 시점에 있다. 지금의 멈춤은 다음의 도약을 준비하는 기회로 준비해야 한다. 아웃바운드의 일이긴 하지만 지난 나의 경험에서 문화예술의 영역만큼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이 없다. 인구 3백만 명이 넘는 메가시티 부산의 경우는 더욱욱 그러하다.

최근 영국 페이든 사에서 출간된 <데스티네이션 아트 (Destination Art)>라는 책을 관심 있게 읽었다. 대부분의 관광객은 여행을 할 때 이름난 관광지의 명소나 랜



드마크를 쫓아서 다닌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먹거리에 관심이 많아지며 이름이 잘 알려진 맛집 그 자체가 여행이나 관광의 동기가 되거나 목적지가 되는 것도 이제는 일상에서 만날 수 있다. 하물며 예술 작품은 그 자체로서 충분히 데스티네이션 아트 목적지가 될 수 없을 까? 물론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많은 사례들 속에서 예술공간/ 작품을 마주하거나 경험하기 위해 여행할 만한 가치가 있는 특별한 베뉴를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500여 개의 공간 중 부산은 하나 언급되는 바 없다.

집단면역이 생겨서 어느 시점에 코로나 끝날지는 예상할 수 없다. 하지만 가까운 미래 이 어려움이 종료될 때 인바운드 여행지로서의 부산을 그려보자. 그리고 그 중심에 문화예술이 있음을 기대해보자. 그러기 위해선 지금 준비되고 있는 부산의 많은 문화 공간들을 그 어느 곳에 내어도 손색없는 시그니처 공간이 되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메울 많은 예술작품들도 그 자체의 성과를 넘어 관광자원화될 수 있도록 만들고 준비해야 한다.

코로나 3차 대유행이 5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4차 대유행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한다. Show Must Go On. 쇼는 계속되어야 하니깐.

돌아와요 부산향애

044 니, 그거 아냐? | 니! 구포, 거 가봤나

050 누꼬? | 한국 역사민속학의 선구자
남창(南滄) 손진태 선생

054 거 가봤나? | 구포 만세거리를 가다



KORAIL
구포역
Gupo Station | 龜浦驛

들어가는 곳

엘리베이터
Elevator

니! 구포, 거 가봤나

글. 신미영 북구 구포이음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사무국장

‘구포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나요?’

많은 사람들이 구포시장, 구포국수, 구포개시장, 구포나루축제, 열차전복사고 등을 언급한다. 이런 단어를 떠올리는 분은 어찌 되었건 관심이 있다고 본다. 구포이음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진행하면서 현장에서 많은 대학생들을 만나는데 구포에 대한 관심·이해가 전무한 경우가 반수 정도이다. 일단 구포가축시장은 2019년 역사의 뒀안길로 사라지고, 반려동물 친화 거리로 새롭게 탄생하고 있는 점은 꼭 짚고 넘어가고 싶다.

적어도 부산 사람이라면 ‘구포’를 이런 의미에서 이런 장소들은 꼭 가 봐야 한다는 생각으로, 니! 구포, 거, 거, 거, 거, 가봤나? 4곳을 짚어 소개하고자 한다. 그 외에 문화예술플랫폼, 구포국수체험관, 청년센터 감동 등 참으로 소개할 곳이 많으나 제한된 지면과 3월이라는 특별함을 기준으로 이야기와 함께 장소의 의미를 소개한다.



첫 번째 장소 : 구포만세길

들리는 가? 그 날의 함성이, 구포만세길을 걷다

1919년 3월 1일 파고다공원에서 대한독립선언을 시작으로 4월 8일까지 전국으로 만세운동이 요원의 들불처럼 퍼져나갔다. 구포는 개항기부터 조선인 상인과 일본인 상인 수백 명이 패싸움을 했다는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상업적으로 번성한 구포를 경제적으로 집어삼키려는 이들 간의 크고 작은 갈등이 많았던 곳이다. 일본제국주의를 등에 업은 일본인 상인들의 행포가 포악해질수록 조선인 상인들의 적개심은 커져갔다. 농민들 역시 한 해 동안 땀 흘려 농사지은 쌀을 일본이 온갖 이유로 수탈해가고 동양척식회사를 통한 토지수탈이 이루어지자 분노가 목구멍까지 차올라 있는 상황이었다.

서울의 3·1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던 3월 중순 경성의학전문학교 학생 양봉근(梁奉根)이 구포로 내려왔다. 양봉근은 구포면 서기 임봉래(林鳳來)를 찾아가 서울과 평양의 3·1 운동 소식을 상세하게 전하고 독립 선언서를 제시하면서 구포 3·1 운동이 계획되게 되었다. 구포 장터 3·1 만세 운동은 경성의학전문학교 학생 양봉근이 내려와 구포면 서기 임봉래와 상의하고 다음날 윤경(尹涇)과 유기호(柳基護)와도 만나 거사를 당부하고 상경하였다. 임봉래·유기호·윤경·김옥겸(金玉兼)·김윤길·허창·김용이 등은 1919년 3월 27·28일 박영초(朴永初)·이수련 집에서 논의를 거듭한 끝에 3월 29일 구포 장날을 거사일로 정하였다. (부산문화역사 대전)

1919년 3월 29일 오전 10시, 구포장에서 30여 명의 청년들이 1차로 “대한독립만세”를 외친다. 시위대는 장사꾼, 장을 보러 온 농민 등이 가세하면서 천여 명으로 불어나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는 민중들의 함성이 하늘을 찔러 일본인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시위대가 뿔뿔이 흩어지고 난 오후 3시경, 김옥겸 외 11명의 주도 인물이 구포주재소에 구금되자 임봉래·윤정은(尹正殷) 등은 1,200여 명의 시위 군중을 이끌고 석방을 요구하며 2차 항쟁을 일으키고 “구금된 애국동지를 석방하라!” 외치면서 구포주재소로 돌진하였다. 일제 경찰들은 시위 군중들에게 무차별 발포를 하여 강제 해산시켰다. 일경 추산으로 일본 군경 3명과 조선인 경찰 1명이 중상을 입었고, 시위 군중들은 9명이 부상당했다고 한다. 그러나 온몸에 수많은 총탄을 맞아 중상을 입은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볼 때 시위대 중 부상자는 이보다 훨씬 많았을 것이다. 구포장만세외거로 재판에 회부된 인물은 42명으로 대부분이 20~30대의 청년들이었다.

1, 2차 합산 이천여 명이 참여한 구포장만세운동은 구포공립보통학교 학생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10대~60대 남녀노소 다양한 계층이 참여한 점이 큰 특징이며 소상공인들은 가게를 철시하고 열



» 구포만세길

성적으로 참여했다. 현대적인 자치기구로 꼽히는 오늘날의 민회에 해당하는 「민의소」가 구포면에 존재 했는데, 면 단위에서 민의소가 만들어진 것은 매우 드문 경우로 구포에서 주민자치 전통이 강력했음을 보여준다. 구포장만세운동의 배경에는 정치·경제적인 이유와 함께 지역의 노인들의 모임인 구포기로사(龜浦耆老社)와 구포청년회 등 지역사회의 네트워크가 유기적으로 작동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여러모로 구포는 근대의 핫 플레이스(Hot Place)였다. 돈과 사람, 그리고 물자가 모이고 교류되는 경제·문화·교통의 중심지였다. 그래서 구포에는 백성들이 세운 민립학교인 화명학교(1908), 구명학교(1907)가 있었고, 최초의 민족계은행 구포은행(1912)이 탄생할 수 있었다. 구포는 적어도 2000년대까지는 번성한 영광의 도시였다. 2010년을 기점으로 도시는 쇠락의 길로 접어들어 2018년부터 구포이음도 시재생사업이 시작된다.

두 번째 장소 : 구포만세길, 구명가게

구명가게의 추억, 항일운동후손이 지키는 구포슈퍼24시(구 부영상회)

구포슈퍼24시는 1955년 주인장 이명환 님이 4살 때, 즉 부모님이 결혼하시고 서너 해 뒤에 문을 열었다고 한다. 그때는 부영상회라는 간판으로 부식거리, 건어물, 과자, 과일 등을 팔았고 어릴 때 모친을 따라 매실 사러 원동에, 감 사러 양산 통도사에, 고구마 사러 진주까지 갔던 것을 기억한다. 그 당시의 거의 모든 먹거리와 생필품을 팔았고, 편의점이 생기기 전 1981년부터 집안의 길흥사 때를 제외하고 문을 닫은 적이 없는 24시간 영업하는 점포이다.

그의 외조부 노원길(1882~1951)과 노원필(1875~1957)은 1919년 3월 29일에 구포장날 만세운동에 참여해서서 장꾼들, 구포 주민들과 목이 터져라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셨다. 두 분은 체포되어서 오랜 시간 조사를 받고 부산지방법원 예심에 회부되어 외조부는 방면되고 큰 외조부는 보안법 위반으로 징



» 구 부용상회 1960년대 모습



» 2021년 3월 구포슈퍼24시 전경

역 4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1919년 구포장은 현재 구포시장의 위치가 아니라 구포슈퍼24시의 뒤쪽 동원비스타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이명훈님 가족은 구포에서 태어나고 자란 터줏대감으로 여전히 오늘도 구포를 지키고 있다. 그는 평범한 생활인으로 살고 있지만 구포 사랑이 남달라서 음료수를 사 마시고 구포의 옛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조르면 아주 신나서 살아있는 역사를 들려줄 것이다.

세 번째 장소 : 구포만세길 밀당쉼터-땡땡이포도존

구포 땡땡이거리를 아시나요?

1990년대 감수성이 가득한 뮤직비디오에 등장하던 철길 건널목! “땡땡땡” 경보음과 함께 차단기가 내려지고 자전거에서 내린 주인공은 건너편에 환하게 웃으며 서 있는 그녀를 향해 손을 흔든다. 그 철길 건널목이 일명 ‘땡땡이거리’다. 구포 땡땡이거리는 1945년 3월에 철길 건널목을 설치하여 큰 종을 울려서 경고음으로 기차 진입을 알렸던 것에서 유래한다. 구포역으로 차량과 사람의 유통이 많아 신호수가 자리를 지키면서 통제 한 1종 철길 건널목으로, “땡땡땡” 경고음은 경부선 상하행선 800m 지점에 기차가 진입했을 때 울리기 시작한다.

일명 구포 땡땡이거리, 철길 건널목이 생기기 전에는 술한 생명이 이 철길에서 사라졌고 굵직굵직한 차량 사고도 많았었다. 2003년 11월에 KTX(운행 최고 속도 305m/h)가 운행되면서 안전사고의 위험 때문에 건널목도 없애고 현재의 지하입체통로구조물(지하보행로)이 만들어져 이용되고 있다. 시속 300km로 달리는 고속철도는 사람의 범접을 불허했고 땡땡이거리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그런데, 그 땡땡이거리, 철길 건널목



» 땡땡이 건널목(1999, 복구청)

을 회상할 수 있도록 포토존을 만들어놓았다. 이 포토존은 구포만세길 1/3지점, 구포1 치안센터 앞 구포시장으로 건너갈 수 있는 지하보행로 입구의 2층 밀·당심터에 항일독립운동가들을 소개하는 사진과 함께 마련되어 있다.

네 번째 장소 : 밀당브로이

구포수제맥주 시즌1 「구포만세 329」를 아시나요?

구포만세길을 따라 계속 걸어오면 KTX구포역이 가까워지면서 구포역세권 밀당로드가 시작된다. KTX구포역 혹은 도시철도 구포역에서 출발한다면 KTX구포역을 오른편에 두고 70m쯤 구포만세길로 걸어가면 밀당브로이를 만날 수 있다.

한눈에 맥주펍으로 보이는 2층 건물인데 부산의 대표적 수제맥주회사 갈매기브로잉이 북구로부터 위탁받아서 운영한다. 기대한 대로 이곳에서 부산의 다른 브로잉의 수제맥주뿐만 아니라 구포장만세운동의 정신을 담은 구포맥주시즌1 「구포맥주329」을 맛 볼 수 있다. 화명생태공원에서 자란 밀을 넣은 밀맥주인 「구포맥주329」는 강인한 독립정신을 술향이 나는 홉을 사용하여 표현했고 끝 맛은 풍부한 열대과일향을 채움으로써 독립의 성취를 담았다. 강한 수제맥주를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강추!

낙동강의 아름다운 붉은 노을 같은 부드러운 맛의 맥주를 즐기는 이는 희망과 위로의 의미를 통합 디자인에 담은 시즌2 「놀·구포」를 권한다. 밀당브로이 2층에서는 달리는 기차를 보며 맥주를 즐겨 보시라. 부산의 구포수제맥주를 즐기기에 이보다 좋은 곳은 없다.

1919년 3월 29일의 구포장만세의거에 참여했던 후손들이 구포를 삶터로 일터로 생활하고 있기에 3월에는 봄꽃보다 더 아름다웠던 조상들을 기억하며 숙연해진다. 여러분도 그날의 함성에 떠올리며 만세길을 걸어보길! 가슴 아래쪽에서 뜨거운 기운이 올라오면 소리 내어 “대한독립만세”를 외쳐보자. 구포만세길에서는 누구도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을 테니, 안심하고 또 한 번 외쳐보자. 대한독립만세! 대한독립만세!



» 밀당브로이

» 밀당심터-맹맹이포토존

한국 역사민속학의 선구자

남창(南滄) 손진태 선생

글. 류승훈 역사민속학자

남창 손진태 선생은 역사학, 민속학, 인류학, 구비문학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학문간 경계를 허물었던 선구자였으며 신민족주의라는 관점으로 한국사를 서술하여 우리나라 역사민속학의 태두가 되었다.

부산에서 태어난 역사민속학의 태두

남창 손진태 선생은 우리나라 역사민속학의 선구자로서 전국적으로 잘 알려진 분이 다. 역사학, 민속학, 구비문학 등에서 그가 이룬 업적은 우리나라 근대 인문학이 성립되는 초석이 되었다. 이렇게 전국적인 명성을 얻은 학자임에도 정작 고향인 부산에서는 그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 그는 청소년 시절 이후로 고향을 떠난 뒤에 주로 일본과 서울에서 활동을 하였다. 그렇다 해도 그간 부산에서 손진태 선생의 활동과 업적을 조명하려는 노력이 너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는 학자로서 뛰어난 능력과 열성을 가졌음에도 그의 마지막 생애는 불우하였다. 지금이라도 고향인 부산에서 손진태 선생에 대해 애착을 두고 그가 남긴 업적을 후세에게 알리려는 노력을 보여줘야 할 때이다.

하단 출생의 손진태, 구포에서 자라다

손진태 선생은 손수인의 차남으로 1900년 12월 하단에서 태어났다. 그는 다섯 살 때 큰 해일이 일어나 어머니를 여윈 이후로 가난을 벗어날 수 없었다. 집안에서는 공부 시킬 형편이 안 되었기 때문에 손진태 선생은 주변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어린 시절을 구포에서 보냈다. 손진태 선생이 남창(南滄)이란 호를 쓴 것



» 손진태 선생
사진 제공. 고려대학교 박물관



» 구명학교
사진 제공_ 부산광역시

도 구포에서 생활한 곳이 남창리였기 때문이다.(당시 구포는 양산군에 속했었다)

손진태 선생에게 구포는 어린 시절 추억이 담긴 고향이었다. 그가 다녔던 학교도 구포의 구명학교다. 구명학교는 현재 구포초등학교의 전신으로 구포의 명망가인 윤상은과 장우석이 1907년 설립하였다. 이 학교는 한때 독립운동가 안희제가 교장을 맡았으며, 임시정부 초대 재무차장을 지낸 윤현진을 비롯한 훌륭한 인물들을 많이 배출하였다. 손진태 선생은 학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서울과 평양을 떠돌다 다시 고향에 내려왔다가 3.1운동을 맞았다. 구포장터에서 발생한 만세운동에 적극 동참했던 그는 주동자로 잡혀 부산형무소에 수감되기도 하였다. 엄혹했던 일제강점기에 학문 활동을 하면서도 조선사편수회에도 참가하지 않고, 창씨개명과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한 것을 보면 청소년 시절의 만세운동이 그의 사상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일본 유학을 통해 역사민속학자로 성장하다

손진태 선생은 서울의 중동학교를 졸업하고 와세다 대학에 입학하였다. 가난하지만 그의 실력을 알아본

유력가들이 학비를 보태 준 것이다. 선생은 일본 유학을 통해 학자로서 실력을 본격적으로 갖추게 되었다. 선생은 와세다대학에서 니시무라(西村眞次)와 쓰다(津田左右吉)에게서, 희귀본이 많았던 동양문고에서 일을 할 때는 시라토리(白鳥庫吉)에게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이들은 모두 일본을 대표하는 인문학자들로서 선생은 그들로부터 민속학(인류학)과 역사학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일본에서 유학을 했던 그가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부단히 고향으로 돌아와 현지 민속 조사를 하였다는 사실이다. 손진태 선생의 민속학 연구 성과를 보면 동래 지역을 대상으로 한 것이 많은데, 유학 시절의 현지조사 경험이 토대로 작용하였다. 그의 민속학 저술은 77편에 이른다. 그 중 종교와 주술을 다룬 연구가 36편으로서 거의 절반에 가깝다. 손진태 선생은 다양한 민속학 주제 가운데 무가(巫歌), 무속, 소도, 장승, 주술, 금기 등 종교 신앙에 특히 관심을 기울였다. 그는 귀족계급의 문화보다는 기층문화에 상당한 관심이 있었기에 민속연구에 열성적으로 나섰던 것으로 보인다. 그가 '전시기에 문화라고 하면 오직 귀족계급이 향유하였던 고급문화만을 의미하였다'라고

꼬집은 이유도 진정한 민족문화인 기층문화를 연구하여 조선문화의 성격을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 문이다.

손진태학, 학문의 경계를 넘나들다

일본과 조선을 왕래하면서 활동을 하였던 손진태 선생은 1934년 이후로는 완전히 귀국을 하였다. 그는 연희전문학교(현 연세대학교)와 보성전문학교(현 고려대학교)에서 동양문화사, 문명사 등을 맡아 강의를 하였다. 잠시 도서관 사서로 일을 하다가 보성전문학교 교수로 임용이 되었다. 도서관에서 일을 하면서 그는 전국의 민속학 자료를 수집하였는데, 이때 수집한 가치가 높은 유물들은 고려대학교 박물관을 세우는 기반이 되었다. 해방 이후에는 서울대 사학과 교수로 임용이 되었다. 하지만 이념 투쟁이 극도에 달한 해방 정국에서 학생들에게 테러를 당하는 등 그의 앞길은 순탄치 못했다.

일제가 일으킨 태평양전쟁 이후로 손진태 선생은 민속학보다 역사학에 주력하였다. 그는 신민족주의 관점으로 한국사를 저술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신민족주의는 민족 전체의 균등한 행복과 민족 간 친선을 이룩한다는 사상이다. 일제 말기에 민족주의가 퇴화하고, 역사학계

는 실증사학으로 경도되고 있을 때 그는 신민족주의라는 관점으로 한국사를 기술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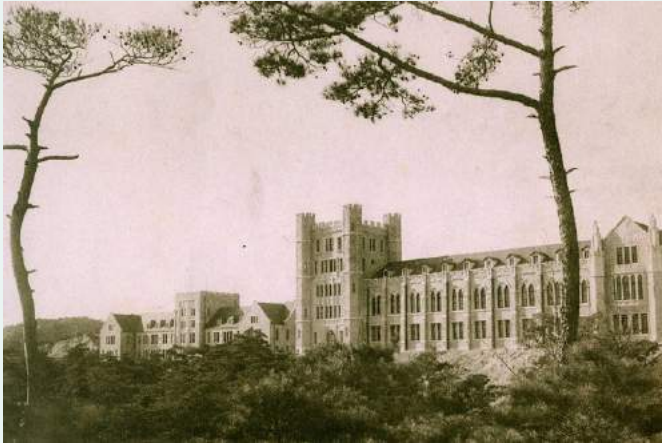
손진태 선생의 역사학 저술을 보면 지금의 역사학과는 큰 차이점을 느낄 수 있다. 대개 정치사와 경제사에 관심을 두는 역사학자와 달리 문명사, 문화사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러면서도 혼인풍속(데릴사위제, 과부약탈혼 등), 온돌, 뒷간, 석전, 구구마 전래 등 미시적 주제까지 천착하였다. 그는 일본어, 한문은 기본이고, 영어와 불어까지 섭렵하였으며, 러시아와 몽골어까지 공부를 하였다. 그의 학문에 대한 폭과 너비가 얼마나 넓은지 알 수 있다. 요즘은 대세는 학문간 융합과 통섭이다. 역사학, 민속학, 인류학, 구비문학을 자유롭게 넘나든 손진태학은 학문 간 경계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현대의 학자들에게 본보기가 될 것이다.

전쟁과 분단의 희생자, 손진태 선생

손진태 선생은 학자로서 저술 활동 외에도 서울대 사범대 학장과 문리대 학장, 문교부 차관 겸 편수국장 등 중요 보직을 맡으면서 사회적 활동을 활발하게 하였다. 하지만 전쟁과 분단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갔다.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문리대 학장으로서 직원들에



» 구포다리를 건너는 사람들과을속도 뱃길. 사진 제공. 부산광역시



» 보성학교. 사진 제공. 고려대학교 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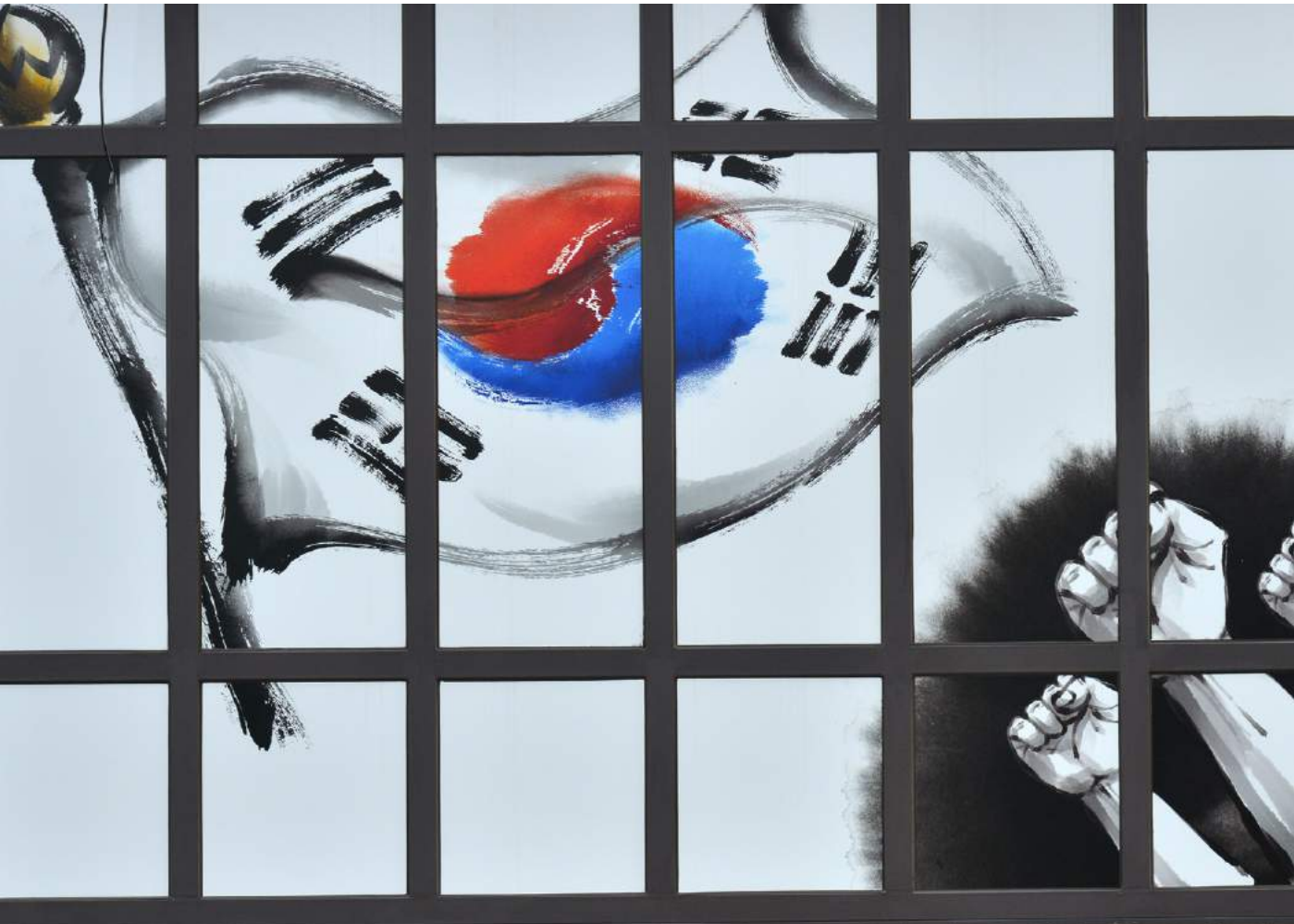
» 현 구포시장. 사진 제공. 부산광역시



»(왼쪽부터)조선민속, 조선민족문화의 연구, 진단학보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게 밀린 월급을 주다가 시간을 놓쳐 한강을 건너지 못했던 것이다. 삼각산에서 숨어 있다가 북한군에 발각되어 결국 납북되었다. 북한에서 그의 생애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 여러 증언에 따르면 북한 정부에 협조하지 않았던 그는 국영농장에서 노동을 하였으며, 지병으로 고생하다가 60년대 중반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고 전한다.

군부 독재 시절 손진태 선생은 납북인사로 분류되어 그의 삶과 활동을 조명한다는 게 어려웠다. 식민사학을 극복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 그의 신민족주의 사학이 점차 주목을 받았으며, 1990년대부터 그의 역사민속학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손진태 선생의 고향인 부산에서는 그의 삶에 대해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나는 몇 년 전 어느 신문에 손진태 선생의 삶을 그가 연구했던 고구마와 비교한 칼럼을 쓴 적이 있다. 손진태 선생이나 고구마나 모두 부산이 고향인데, 고향에서 온당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차라리 고구마가 낫다. 부산이 고구마 시배지라는 사실이 조명 받았으며, 영도에 보내기 고구마 역사공원까지 생겼으니 말이다. 그를 기리는 작은 추모비라도 세워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것은 이런 까닭이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허름한 건물, 서터가 내려진 낡은 건물 앞에 펼쳐진 만물전...
3월의 햇살이 따스한 오후, 구포 만세거리와 시장을 떠돌며 나른한 애수에 젖는다.



» 구포 만세테마거리



구포 만세거리를 가다

글·사진. 문진우 사진가, 본지 편집위원장

구포 만세운동은 1919년 3.1만세운동이 일어난 당월 29일 이곳 구포에서 일어난 만세운동이다. 구포가 고향인 경성의학전문학교 재학생 양봉근이 구포에 내려와 먼서기로 근무하던 임봉래에게 경성의 만세시위 소식과 독립선언서를 전달하면서 시작되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구포 장날인 1919년 3월 29일을 거사일로 선택하여 당일 이곳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장터에 모인 1,000여 명과 함께 만세를 부르고 구포역까지 태극기를 흔들며 행진을 했었다.

구포역 앞 광장에서 덕천동 쪽으로 가다 보면 구포 만세테마거리가 나온다. 부산의 대표 음식 중의 하나인 구포국수 체험관도 이 골목에 있다. 국수를 파는 식당이면서 제면 과정을 체험해볼 수 있는 공간이다. 구포 만세테마거리에는 구포만세운동과 관련된 그림과 사진 그리고 관련 글들이 2~300m의 철길 쪽 벽에 장식되어 있다. 그림을 보고 있으니 그날의 함성이 들리는 듯하다. 불과 5~6년 전까지만 해도 이 골목에 남아 있던 몇몇 오래된 건물이 이젠 거의 사라지고 한두 채밖에 없다. 휴일이라 그런지 거리는 한산하다. 셔터가 내려진 낡은 가게 앞에 만물전이 펼쳐져 있다. 싸구려 선글라스, 손톱깎이, 플래시, 각종 공구들을 깔아 놓고 트로트 음악으로 행인들을 유혹하지만 발길을 잡지 못한다. 행인들은 힐끔 눈길만 던질 뿐, 그냥 지나간다. 3월의 햇살이 따스한 오후다. 거리는 춘곤증에 걸린 마냥 한가하기만 하다.



▶ 빛바랜 구포역 주변 흥등가

구포역 주변 골목으로 들어가 보면 큰길 바로 옆이지만 분위기가 완전 다르다. 왠지 편하게 골목을 다니기에 조금은 불편감이 느껴진다. 세월의 흔적을 품은 허름한 건물들이 조금 남아 있다. 여인숙 낡은 모텔 등... 요즘 보기 드문 여인숙이 눈에 보여 문을 열고 복도를 따라 들어가 보았다. 키 큰 나 같은 사람은 혼자 눕기에도 좁은 방이 다닥다닥 붙어 있다. 그래도 지갑 얇은 어떤 이들은 이곳에서 잠을 잤을 것이고 사랑도 나누었으리라... 몇 개의 낡은 모텔들이 밀집해 있는 뒤로는 고층 아파트가 위압적으로 서 있다. 발길을 돌려 옆 골목으로 들어갔다. 세련과는 거리가 먼 간판이 촌스럽게 붙어 있는 노래방도 눈에 들어온다. 골목에서 마주치는 사람들과의 눈빛 교환도 어색하다.

골목을 빠져나와 밑으로 내려갔다. 점집 간판, 전당포 간판이 보인다. 요즘도 전당포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긴 있나 보다. 조금 더 내려가니 여인네의 싸구려 향수 냄새 가득할 것 같은 홍등가 술집이 보인다. 산올림, 느낌, 비원, 등지 간판을 보니 갑자기 이유 모를 슬픔이 몰려온다.



> 구포역 주변 골목길 풍경

구포는 낙동강의 입구로서 강을 따라 상류 지역인 경상북도까지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과거부터 농산물을 포함 다양한 생산물들이 교환되는 상업의 중심지였다. 자연스럽게 시장이 발달할 수밖에 없다. 구포시장(龜浦市場)은 구포장이라고 불리던 조선 후기 오일장인 장시(場市)로부터 발달해 왔다. 구한말부터는 많은 객주가 모여들었고 유통경제가 발달하면서 규모가 커지기 시작했다.

» 구포시장 입구





» 구포시장 골목 풍경

장 안으로 들어갔다. 시간이 일러서 그런지 생각보다 사람이 많지 않다. 만세운동의 자존심은 시장 속에도 있다. 시장 천장 저만치에 대형 태극기가 걸려 있다. 이 골목 저 골목 둘러보니 시장 규모가 정말 대단하다. 먹거리에서부터 생필품 패션 심지어 가구까지 그야말로 없는 것이 없다. 장날이 되면 시장 밖 주변까지 몰려드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서부산 최고 최대의 재래시장임에 틀림없다.

카메라를 메고 오후 한나절을 걷고 나니 출출하다. 허기진 배, 시장 칼국수 한 그릇으로 해결했다. 3,500원 착한 가격으로...

그리고 재단

062 듣기 | 지금, 소통의 깊이에 더 집중할 때
| 나, 너, 우리를 이해하게 하는 '예술'

066 말하기 | <COVID-19> 속 <B-바빠를라>로
새로운 도전

068 보기 | 주요행사

감만



창의문화촌

DONGIL
THE SCITE
103

부산문화재단
BUSAN CULTURAL FOUNDATION

부산문화재단

지금, 소통의 깊이에 더 집중할 때

글. 김리아 홍티아트센터 입주작가

레지던시와 팬데믹

한국의 레지던시는 1995년 이후, 민간 주도 및 국공립 모두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 예술가들에게 있어 창작 환경을 보장받으며 다양한 예술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자 시스템이다. 현재 전국에 자리한 레지던시들을 통해 많은 예술가들이 지역에서 일정 기간 창작활동을 이어나간다.

홍티아트센터 역시 매년 국내외 예술가들이 머물며 작업을 진행한다. 낙조가 아름다운 다대포의 포구 앞에 위치하며 작업에 집중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갖추어져 있어 필자는 다소 멀리서 활동함에도 익히 들어왔던 공간이다. 뿐만 아니라, 해외 여러 레지던시와의 교류 사업 역시 활발히 진행하여 입주 작가들의 지평을 넓히는 역

할도 해왔다. 그러나, 현재 전 세계 미술계가 팬데믹, 혼돈의 시간이 1년 넘게 지속된 만큼 해외 예술가 및 창작 공간의 교류가 단절되었다. 이런 물리적인 제약을 기다림이 아닌 다른 방안으로 풀어갈 순 없을까? 최근 대면과 현장 접촉이 당연시되었던 여러 활동들이 변화했다. 만남은 화상으로 전시는 영상으로 대체되곤 한다. VR 기술은 빠르게 진화하고 생활 속으로 파고든다. 언젠가는 이 타의에 의한 고립의 시대는 끝이 오겠지만, 이미 비접촉의 구현은 시작되었고 앞으로 더 활발해질 것이다. 이에 따라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교류 방법을 착안할 수 있길 바란다. 화상을 통한 해외의 예술계 인사에 대한 초청은 더 쉬워질지도 모른다. 물리적인 이동과 시간에 투자하는 대신 소통의 깊이에 집중할 방안도 있을





것이다. 이번 시대적 재해를 계기로 물리적 경계를 넘어 레지던시 간의 소통의 방안 역시 다각도로 모색되길 바란다.

예술가의 직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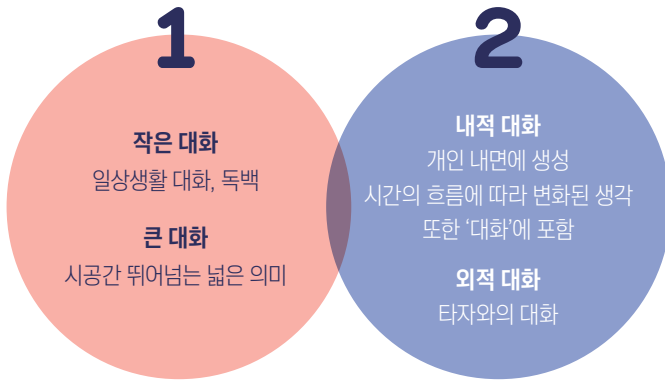
예술가로 살아가는 방안엔 대안이 늘 필요하다. 예술활동이 때론 본업에서 밀리기도 하여 작품 활동에만 집중하기란 지속하긴 쉽지 않다. 더불어 천정부지로 치솟는 부동산은 작업실과 집 모두 위협받는 요소이다. 이에 지자체의 레지던시 입주 작가들은 장소의 환기를 넘어 입주 기간만큼은 확보된 공간에서 인건비로 작업에 집중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소정의 금액이다 보니 이들과 조차 전시 준비를 위해 다른 일을 하거나, 지역 연계 작업을 기계적으로 소화하기도 한다. 신란희의 「예술가의 레지던시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에 따르면 각 레지던시는 운영 목적에 따라 유형이 갈린다. 이 목적성에 있어 홍티아트센터는 창작 중심형의 레지던시로서 역사를 자랑하며 입주 예술가들은 레지던시 안의 커뮤니티 속에서도, 해외나 타 지역의 레지던시들과 상호교류를 통해서도 자극을 경험하고 성장한다. 비록 공공기관의 행정에 있어서 예술가의 성장과 공간에서의 전시들은 가치 입증에 쉽지 않지만 이에 공간이 쌓아 온 역사성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 까다로운 심사와 입주생활을 거쳐 나온 예술가들의 작업이 공공재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지원과 해석이 필요한 시점이 된 것 같다.

나, 너, 우리를 이해하게 하는 ‘예술’

글. 김수경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연구원

대화, 그리고 예술

러시아의 철학자이자 문학평론가였던 미하일 바흐친(Mikhail Bakhtin)은 화자와 청자가 음성적으로 주고받는 것을 비롯해, 글을 통해서도 대화가 이루어진다고 주장했다. 바흐친은 두 사람 이상이 주고받는 대화 과정뿐만 아니라, 그 대화 과정에서 어느 한 사람이 내면에 의미를 생성하는 것 또한 대화라고 간주하였는데, 다음 표와 같이 대화를 포괄적 개념으로 파악하고자 했다.)



그에 따르면, 참여자로서 공연을 관람하거나 축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에게 적극적으로 작품의 의도를 묻고 답하는 것, 무엇을 느꼈는지 묻고 답하는 것과 같은 모든 행위가 대화이다. 또한 타자와의 대화 속에서 내면으로 작품의 의미를 확장하는 경우도 '대화'로 간주한다. 즉, 쌍방향의 대화가 아니라 일방향의 대화더라도, 청자가 능동적으로 화자의 말을 해석하고자 하는 것 역시 대화다. 예컨대 문화해설사와 함께하는 축제인 경우, 정보를 전해 들으며 마음속으로 자신만의 감정을 느끼고 참여자만의 생각을 구축하는 것도 넓은 의미의 대화인 것이다.





예술이 지닌 힘

공연, 전시회, 거리예술, 문학, 축제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을 접하고 즐길 때 우리는 현재의 직업, 나이, 지역 등 부수적인 정보와는 관계없이 오롯이 ‘나’로서 존재한다. 오로지 관람하는 예술작품에서 기쁨, 슬픔, 사랑, 증오, 삶과 죽음 등 공존과 대립을 볼 뿐이다.¹⁾ 우리는 여기서 반대되는 것과 공존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나와의 대화, 그리고 ‘타자’와의 대화가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이해와 사고의 폭을 넓히며,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예술을 감상함으로써 발생하는 의견을 주고받음으로 나를 찾고 서로를 이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술이 가진 힘이다.**

2020년 이후로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악조건에 맞닥뜨려 어색하고도 불편한 새로운 일상을 맞이했다. 이런 매일수룩 인간은 서로를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지속적인 소통을 시도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바흐친의 주장과 같이, 인간은 끊임 없는 타자와의 대화를 통해 진정한 ‘나’로 존재할 수 있다. 인간은 대화 과정에서 정체성을 찾고, 의미를 확장해 나가며 이해의 폭을 넓혀나간다. **그러므로 위기일수록 대화와 사고 확장의 장이 되는 예술의 가치를 조명하고, 예술 활동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부산문화재단이 걸어온 길, 걸어갈 길

전 세계적으로 문화 민주주의를 추구하며 공공성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유럽의 경우 국가적 차원에서 창작 공간과 체험 공간을 제공하며 지역적 차원에서는 지역민의 문화예술 참여도를 높이며 지역 예술인을 양성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핵심은 예술 활동을 바탕으로 대화와 소통을 하며,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드는 것에 있다.

부산문화재단 역시 생활문화 조성, 문화 다양성 가치 발굴, 창작 공간 운영, 역사문화 콘텐츠 발굴 등을 수행하는 선도적 기관으로, 불평등과 불균형 해소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들을 수행하며 예술의 가치를 발견했던 것처럼, 앞으로는 ‘그래서 예술이 지닌 가치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역할 또한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예술로 대화하며 나를 찾고, 상대를 이해하며, 상반되지만 상생을 위해 존중할 때, 우리는 비로소 더 나은 세상을 후대에 물려줄 수 있을 것이다.

1) 이임주(2020), 평생교육에서 바흐친의 대화론을 적용한 질적 사례연구 : 현대미술 감상을 중심으로, p14를 바탕으로 재구성
2) 류정아(2013), 「축제이론」, 커뮤니케이션북스 출판

<COVID-19> 속 <B-바빠롤라>로 새로운 도전

글. 김진섭 부산문화재단 뉴택트TF팀

부산문화재단은 부산의 많은 예술인들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코로나를 극복하고, 시민들 또한 롤룰라라 즐거운 일상을 찾길 바라는 마음으로 <B-바빠롤라>라는 사업을 시작하고자 한다.

지난 2020년은 문화예술계가 잊지 못할 한 해일 것이다. 갑작스레 다가온 전염병으로 인해 공연장, 미술관, 문화시설들이 휴관함은 물론 각종 문화행사들이 줄줄이 취소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많은 예술인 및 관련 업계의 활동과 생계가 어려워졌고, 시민들은 집 밖으로 나갈 수도 없는 공포의 시간을 보냈다. 처음엔 잠시 지나가는 전염병이라 생각했던만 여태껏 우리의 삶을 옥죄고 있다. 이러한 힘든 여건 속에서 문화예술계에도 큰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온 것이 바로 비대면, 콘텐츠 이 두 가지 키워드라 할 수 있다.

재단에서도 이러한 사회의 흐름에 맞추어 비대면 방식으로 각종 심의를 진행할 뿐만 아니라, 예술인들의 활동을 담은 영상작품을 많은 시민들이 유튜브로 즐겨볼 수 있도록 <방구석 프로젝트>를 진행해 재단 내부에서 비대면으로 사업을 전환하게 된 시발점이 되었다.

이외에도 예술인 긴급생계지원, 소규모 예술공간 방역지원,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지원사업 등 코로나 극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2020년을 보내면서 재단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었

다. 유튜브 등 다양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콘텐츠가 무수히 생산되고 있는 시점,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어느 시기에 온라인 기획사업 운영, 플랫폼 구축을 할 것인가? 어떻게 부산 문화예술계에 보탬이 될까? 고민하며 2021년 2월 뉴택트TF팀을 신설했다. TF팀 신설 후 고심 끝에 재단에서 시작하게 된 사업이 바로 <B-바빠롤라>이다. 이번 사업 <B-바빠롤라>를 통해 부산의 많은 예술인들이 코로나를 극복하며 여러 활동으로 바빠지고 이러한 예술인들의 활동을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롤룰라라 즐거운 일상을 찾고자 지어진 이름이다.

사업에 대해 얘기하자면 콘텐츠 제작 및 플랫폼 구축의 2가지의 큰 분류를 가지고 있으며, 직접사업은 대략 4가지 정도로 분류되는데 청소년부터 원로까지 다양한 세대의 예술인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영상 콘텐츠로 기획, 제작하여 플랫폼을 통해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한다.

먼저 청소년(중고생)을 위한 사업으로 <Project 051>은 아직은 여물지 않은 미래의 예술가들을 발굴,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모를 통해 접수를 받고 예비예술가들의 잠재된 예술적 재능을 영상 콘텐츠에



담아 경연하는 방식의 프로젝트이다. 또한 단발성 프로젝트가 아닌 다년도 간 프로젝트를 운영하여 예비예술가들의 데뷔 또는 입문의 장으로 확산시키고자 한다. 아직 세부적인 내용과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 사업을 통해 부산 문화예술계의 미래이자 힘이 되어줄 예비예술가들이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한다.

두 번째로 <비플즈>라는 사업을 살펴보면, 이름 그대로 부산 사람들을 뜻하고 있다. 부산의 신진(청년) 예술가들이 각 분야의 원로예술가와 만나 예술적 소통, 지난 활동, 근황 등을 기록하고 지나온 예술활동들을 재조명하는 과정을 영상 콘텐츠로 담아내고자 한다. 세 번째로 소개할 사업은 <부스타>로 최근 초등학교생들이 희망하는 직업 1위인 크리에이터 관련 사업이다. 부산벤처 스타 크리에이터를 발굴함과 동시에 재단의 틀에 박히지 않고 제작할 수 있는 제작비를 지원하여 다채롭고 신박하게 제작된 콘텐츠로 부산의 스타 크리에이터를 육성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급작스럽게 변한 비대면으로의 사업전환, 콘텐츠 제작 붐에 예술인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장비, 기획, 플랫폼의 이해 등 5일 동안 속성코스로 진행할 계획이다. 상반기에 6회 정도의 속성코스 수업이 개설될 예정이며, 수요에 따라 하반기 추가 운영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콘텐츠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교육영상(VOD) 제작 등 예술가들의 콘텐츠 제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두서없이 사업에 대해 기술한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는 온라인 콘텐츠 시장에서 부산의 문화예술계가 살아남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 재단에서는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다. 이제 막 첫발을 내디딘 상황이지만 다양한 시도와 도전을 통해 조금이나마 부산예술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앞으로 시작될 <B-바빠블라>에 많은 관심과 응원, 그리고 질책도 부탁드립니다.

주요행사

2021

4

April

MON	TUE	WED	THU	FRI	SAT	SUN
			1	2	3 토요일사교실 10:00~12:00 조선통신사역사관	4 조선통신사역사관 영화제 14:00~16:00 조선통신사역사관
5	6	7	8	9	10 토요일사교실 10:00~12:00 조선통신사역사관	11 조선통신사역사관 영화제 14:00~16:00 조선통신사역사관
12	13	14	15	16 홍티아트센터 입주작가 릴레이개인전 4.16~4.30 김리아 홍티아트센터	17 토요일사교실 10:00~12:00 조선통신사역사관	18 조선통신사역사관 영화제 14:00~16:00 조선통신사역사관
19	20 MADE IN 사상 CATs 사상인디스 테이션 소란동	21 조선통신사역사관 개관10주년기념식 16:00~17:30 조선통신사역사관	22 MADE IN 사상 CATs 사상인디스 테이션 소란동	23	24 토요일사교실/ 조선통신사역사관 개관 10주년 기념사업 13:00~17:00 조선통신사역사관	25 조선통신사역사관 영화제 14:00~16:00 조선통신사역사관
26	27 MADE IN 사상 CATs 사상인디스 테이션 소란동	28	29 예술인매칭데이 (예술인을 JOB아라) 송상현광장 MADE IN 사상 CATs 사상인디스 테이션 소란동	30		

※ 추후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주요행사

2021

5

May

MON	TUE	WED	THU	FRI	SAT	SUN
					1	2 조선통신사역사관 영화제 14:00~16:00 조선통신사역사관
3	4 MADE IN 사상 CATs 사상인디스 테이션 소란동	5	6 MADE IN 사상 CATs 사상인디스 테이션 소란동	7	8 토요상설 전통민속놀이마당 '박대성류 아쟁산조' 14:00 용두산공원 광장	9 조선통신사역사관 영화제 14:00~16:00 조선통신사역사관
10	11 MADE IN 사상 CATs 사상인디스 테이션 소란동	12	13 MADE IN 사상 CATs 사상인디스 테이션 소란동	14 조선통신사선 뱃길 탐방 '배타러 가자' 5.14~16 용호만부두 일원 홍티아트센터 입주 작가 릴레이 개인전 5.14~5.28 김덕희 홍티아트센터	15 토요상설 전통민속놀이마당 '수영농청, 좌수영 어방놀이' 14:00 용두산공원 광장	16 조선통신사역사관 영화제 14:00~16:00 조선통신사역사관
17	18 MADE IN 사상 CATs 사상인디스 테이션 소란동	19	20 MADE IN 사상 CATs 사상인디스 테이션 소란동	21	22 문화다양성 주간행사 5.22~5.28, 17:00 구포역 광장※개막식(5.22) 토요상설 전통민속놀이 마당 '부산기장오구굿' 14:00 용두산공원 광장	23 조선통신사역사관 영화제 14:00~16:00 조선통신사역사관
24	25 MADE IN 사상 CATs 사상인디스 테이션 소란동	26	27 MADE IN 사상 CATs 사상인디스 테이션 소란동	28	29 F1963 오픈스퀘어 (공연) F1963 스퀘어 토요상설 전통민속놀이마당 '부산영산재' 14:00 용두산공원 광장	30 조선통신사역사관 영화제 14:00~16:00 조선통신사역사관
31						

※ 추후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주요행사

2021

6

June

MON	TUE	WED	THU	FRI	SAT	SUN
	1	2	3	4	5	6
				흥티아트센터 입주작가 릴레이개인전 6.4~6.18 이나림 흥티아트센터	안녕하세요 예술씨 감만창의문화촌 토요일상설 전통민속놀이마당 '구덕망개터다지기 고분도리걸립' 14:00 용두산공원 광장	조선통신사역사관 영화제 14:00~16:00 조선통신사역사관
7	8	9	10	11	12	13
					안녕하세요 예술씨 감만창의문화촌 토요일상설 전통민속놀이마당 '동래야류, 동래학춤' 14:00 용두산공원 광장	조선통신사역사관 영화제 14:00~16:00 조선통신사역사관
14	15	16	17	18	19	20
					안녕하세요 예술씨 감만창의문화촌 토요일상설 전통민속놀이마당 '부산농악' 14:00 용두산공원 광장	조선통신사역사관 영화제 14:00~16:00 조선통신사역사관
21	22	23	24	25	26	27
			흥티아트센터 입주작가 릴레이개인전 6.25~7.9 이예진 흥티아트센터	안녕하세요 예술씨 감만창의문화촌 F1963 오픈스퀘어 (공연) F1963 스퀘어 토요일상설 전통민속놀이마당 '강태홍류 가야금산조' 14:00 용두산공원 광장	조선통신사역사관 영화제 14:00~16:00 조선통신사역사관	
28	29	30				

※ 추후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

부산은행 지역경제 살리기 프로젝트

지역은행의 뿌리를 잊지 않습니다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지역에 힘이 되는 은행, 바로 부산은행입니다



지역경제에 힘이 되는 은행

BNK 부산은행

「공감 그리고」는 무가지로 발간되며, 별도의 구독요청은 받지 않습니다.

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www.bscf.or.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부산문화회관, 구군 문화회관 (해운대, 을숙도, 금정, 동래, 영도), 부산시민회관, 감만창의문화촌, 조선통신사역사관, 사상인디 스테이션, 홍티아트센터, 한성1918 부산생활문화센터, 도시철도 북 하우스, 또따또가 운영센터, 영화의 전당, 부산시립미술관, 영광도서, 민주공원, 부산지역 관광안내소 등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무료 배포처 문의 : T. 051-745-7224 E-mail. bscf@bscf.or.kr



유은석 - 사격훈련
2020, 160×48×20(cm), 포맥스, 아크릴채색

부산문화재단
BUSAN CULTURAL FOUNDATION

[48543]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 84-1(감만동)
T. 051 744 7707 F. 051 744 7708 ~ 9
www.bscf.or.kr



9 772586 107008
ISSN 2586-1077

「공감 그리고」는 무가지로 발간되며, 별도의 구독요청은 받지 않습니다.

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www.bscf.or.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부산문화회관, 구군 문화회관 (해운대, 을숙도, 금정, 동래, 영도), 부산시민회관, 감만창의문화촌, 조선통신사역사관, 사상인디 스테이션, 홍티아트센터, 한성1918 부산생활문화센터, 도시철도 북 하우스, 또따또가 운영센터, 영화의 전당, 부산시립미술관, 영광도서, 민주공원, 부산지역 관광안내소 등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무료 배포처 문의 : T. 051-745-7224 E-mail. bscf@bscf.or.kr



유은석 - 사격훈련
2020, 160×48×20(cm), 포맥스, 아크릴채색

부산문화재단
BUSAN CULTURAL FOUNDATION

[48543]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 84-1(감만동)
T. 051 744 7707 F. 051 744 7708 ~ 9
www.bscf.or.kr



9 772586 107008
ISSN 2586-1077